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인 영

국문초록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인 영

한국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주민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발달을 더 이상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과 인지 발달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주민 문화에 대한 주류집단 부모의 태도는 문화와 관련된 특정 사회화 활동이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로 전이된다. 기존 연구에서 소수문화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수용태도가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본 국내 사례는 매우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화 이론과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체계인 언어에 주목하여,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화 활동으로 이주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연구 목적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자녀관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데이터 중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이주민 어머니,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총 1,100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여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개별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과 팬텀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관계 또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

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텀변수를 활용한 개별적인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주민 부모뿐만 아니라 한국인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체계 내에서 소수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세대 간 태도 전이를 설명하는 사회화 모델이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임을 검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을 두 매개변수를 동시에 활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소수문화 관련 태도 함양을 위해서는 한국인 아버지들을 주요 대상으로 이주민 배우자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주민 어머니의 자조모임 참여 수준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세대 간 문화에 대한 태도 전이, 아동의 사회화,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

학 번 : 2014-2026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문제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7
1. 다문화가정의 인구학적 특성	7
2. 다문화가정의 실태	8
제2절 사회화 이론	11
1. 사회화 이론	11
2. 사회화 이론의 경험적 연구에 대한 검토 : 연구모형의 도출	14
제3절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19
제4절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	21
1. 부모의 다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이해	21
2.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25
제5절 매개변수로서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26
1.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27
2. 부모-자녀관계	30
제6절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	33
제3장 연구 모형	36
제1절 연구 모형	36
제2절 연구 가설	37
제4장 연구 방법	39
제1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39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0

제3절 분석 방법	40
제5장 연구결과	50
제1절 연구대상자 특성	50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53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3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56
제3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59
1. 측정모형 분석	60
2. 구조모형 분석	65
3. 매개효과 분석	71
제6장 결론	7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5
제2절 논의	77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77
2.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에 미치는 영향	78
3. 부모-자녀관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79
4.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80
제3절 연구의 함의	83
1. 이론적 함의	83
2. 실천적 함의	84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89
참고문헌	92
<부록>	110
Abstract	112

표 차 례

<표 1> Bennett(1993)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 모형	22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1	53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2	56
<표 5> 관찰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8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62
<표 7> 측정모형 분석 결과	65
<표 8>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67
<표 9>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	70
<표 10> 효과분해 분석 결과	72
<표 11> 팬텀변수 활용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73

그 립 차 례

[그림 1] Joyce(2012)의 연구 모형	17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 모형	18
[그림 3] 측정모형 분석	61
[그림 4]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6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한 외국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단일민족 사상과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현상으로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국제 혼인을 들 수 있다. 현재 국제 혼인의 비중은 전체 결혼 건수의 약 7%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행정부, 2015). 전국 다문화가정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7만 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도에 비해 약 4.3%가량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그리고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세는 자연스럽게 학령기에 돌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총 20만 8천명으로, 이는 2011년 15만 2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안전행정부, 2015). 이 중에서도 약 60%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어, 향후 수년 안에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5).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의 주류문화와 이주민 부모의 소수문화를 접하며 성장하는 동안 비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일 수 있다(Redfield, Linton, Herskovits, 1936). 이러한 이중문화 환경에서 자녀가 어떠한 문화를 접하고, 이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승경·양계민, 2012; 은선경, 2010). 초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이주민 부모의 문화를 배제하고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주장하는 동

화주의 관점이 우세하였다(Charmaraman & Grossman, 2010; Whaley & Francis, 2006). 그러나 이후 자녀가 소수문화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확립할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주장하는 이중문화적 관점이 등장하면서(Berry, 2005), 다수의 연구에서도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나 자아존중감,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여 왔다(김승경·양계민, 2012; 안은미, 2007; 박현선 외, 2012). 이와 같은 연구들은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주류문화 적응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동화주의 입장에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소수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정정화, 2014; 허청아, 2014).

한편으로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는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사회화 이론(socialization theory)에 의하면 부모는 주요 사회화 대행자(socialization agent)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태도를 전달함으로써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결정한다(Glass et al., 1986; Harris, 1995; Collins et al., 2000). 소수집단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소수집단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었다(趙衛國, 2007; Stepney, Sanchez, & Handy, 2015; Furnham & Stacey, 1991). 특히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체계인 가정 언어(home language)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언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인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Luo & Wiseman, 2000; Oh & Fuligni, 2010).

다문화가정 자녀도 소수집단 자녀의 범주에 해당되지만,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통합된 이중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서구의 이주민가정 자녀와는 다른 고유한 형태의 문화 관련 태도를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들을 부모의 태도에 주목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주류문화권에 소속된 부모는 비록 소수문화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수집단 자녀의 문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류집단 구성원이다(Hoijer, 1954). 따라서 한국인 부모의 긍정적인 소수문화 수용태도는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배워가며 성장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화수용태도를 다룬 국내 다문화관련 연구들은 또래집단이나 지역사회 일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고현, 최진숙, 김성미, 2015; 정수정·김영식, 2015; 인태정, 2009; 채명정, 김진일, 이진희, 2015), 정작 부모의 문화수용태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결혼이주민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적응과 같은 동화주의 관점에 초점을 둘 뿐 주류집단 부모가 보여주는 소수문화 수용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하였다.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문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입 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류집단 구성원이자 가족 일원인 한국인 아버지를 주요 인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수문화 수용태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한편으로 소수 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아동기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수행하는 문화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 간 관계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한다(Glass et al., 1986). 문화사회화 활동은 문화와 관련된 부모의 가치관과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ung, Kim, & Lee, 2013). 이주민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 또한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를 결정하며, 주류집단 배우자의 문화 수용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화사회화 활동이다(김미진,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대부분의 이주민 어머니가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의 강요에 의해 모국인과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실태조사의 결과(강현주, 2007)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자녀관계 또한 자녀가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세대 간 태도 전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국외 연구에서도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소수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Kiang et al., 2010; Stepney et al., 2015; Miville et al., 2005; Chong, 2012; Lamborn & Nguyen, 2004; Casey & Dustmann, 2010; Rumbaut, 1997). 국내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주류사회 적응과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지영, 2012; 은선경, 2010; 김미예, 임지영, Chung, 2012).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 주목하여 문화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 사례는 전무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및 경험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화 이론을 적용하여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이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유형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이주민 어머니,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태도를 내면화하는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논의에 근거하여 학령기 후기로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학령기 후기는 자녀가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위 사물과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시작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신희건, 유일영, 오의금, 2010). 또한 청소년 전기에 확립하는 문화적 정체성 발달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Johnson et al., 2007). 따라서 이 시기에 있는 아동의 문화 관련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확립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문화적 가치관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각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다문화가정의 세대 간 태도에 대한 전이와 함께 소수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바람직한 태도 확립을 돕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가지는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개입지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관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1. 다문화가정의 인구학적 특성

1990년 대 이후 국내로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다문화가정이란 두 개 이상의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들이 혼인을 통해 형성하는 가정을 통칭한다. 또한 한 가정. 내의 차이는 물론 가치나 문화, 생활양식 등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최현미 외, 2008).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태원, 2011). 광의의 개념에서 다문화가정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거주국 국적의 소유자와 외국 국적의 소유자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다문화가정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태원, 2011). 반면에 협의의 개념은 외국 국적의 소유자와 거주국 국적의 소유자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만을 뜻한다(오대영 · 안진경, 2011). 최근 국내에 진입한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국제결혼가정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북한이탈가정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 지역에 따라 크게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임선일 외, 2015). 국내출생 자녀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리킨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일정기간 동안 성장하다가 도중에 한국에 입국한 자녀를 의미한다(오대영 · 안진경, 2011).

이렇듯 다문화가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그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탈가정이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주류사회에서 체류한 기간이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만큼 길지 않다. 이에 따라 부모의 문화를 내면화하거나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는 다를 수 있다(송영호·윤은진, 2011). 또한 이중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탈북자가정 자녀와는 다른 문화적응이나 발달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다문화가정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형 중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문화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소유한 국제결혼가정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민의 편중된 성별 실태를 고려하여 결혼이주민 여성과 한국인 남성,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국내출생 자녀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가족 일원들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을 논의의 편의상 다문화가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의 실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급증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1980년 이후 나타난 한국 농촌의 성비불균형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 현상을 들 수 있다(안진, 2013).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농촌 총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개발국가 출신 결혼이주민 여성의 대거 유입을 승인한 결과, 한국인 남성과 이주민 여성 간 국제 혼인이 급증하였다(서문희 외, 2011). 이러한 국제 혼인은 농촌 지역에 더 집중되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외국인 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과

마찬가지로 소수문화를 소유한 대표적인 다문화적 소수집단(multicultural minority group)구성원이다(송영호·윤은진, 2011).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9). 이러한 국내 국제결혼의 보편화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 양상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문화사회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정서적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진은영, 2008).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부분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이나 편견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따돌림이나 편견의 원인으로는 단순히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혹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9). 이처럼 겉모습에 따른 차별 요인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더욱 심각한 정서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진은영, 2008). 이와 관련해 최근 나타난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는 학업 중단 현상을 들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2014년 기준 688명으로 학교 급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다(양승주 외, 2016). 이는 절대적으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 학업 중단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중단율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사회부적응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결혼취약남성과 경제력이 없는 이주민 여성 간 혼인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김미숙 외, 2011). 다문화가정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부족함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는 자녀는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과 유대를 갖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와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기 쉽다(조영달, 윤회원, 박상철, 2006).

마지막으로 부모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와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는 혼인 이전에 보유해 온 자국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서로 간 오해와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정정화, 2014). 특히 소수문화를 배제하면서 이주민 배우자에게 주류문화를 강요하는 주류집단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과 자아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지승희 외, 2008). 특히 의사소통의 수단인 소수 언어를 제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와 주 양육자인 이주민 어머니 간 의사소통의 단절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녀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불신과 대인관계 구축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과 어려움은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와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사회화 이론

1. 사회화 이론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출생 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 행동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의 사회화는 전 발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인구학적 요인과 주변 사회적 환경 요소에 따라 그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Goldstein & Oldham, 1979).

개인의 사회화는 타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Bugental & Grusec, 2006). 다시 말해 개인은 타인의 행위나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가치를 확립한다는 것이다(Davidov & Grusec, 2007). 또한 타인의 반응이나 판단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아개념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사회화는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Cooley, 1902).

또한 사회화는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내면화란 학습자가 집단으로부터 특정 가치를 조직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융해하는 과정으로(Krathwohl, Bloom, & Masia, 1964), 사회 집단이 소유한 가치나 규범,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 때 가정은 아동의 내면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이다(Johnson, 1981). 그리고 가정을 구성하는 인물 중에서도 특히 부모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짐과 동시에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대행자(the primary socialization agent)로 알려져 있다(Johnson, 1981; Maccoby, 2007; Phinney, Berry, Vedder & Libeskind, 2006). 아동기 자녀는 부모의 태도와 행위 양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사회화를 경험하며, 나아가 고유의 태도와 행동 양상을 학습하게 된다.

한편 Harris(1995)은 태도라는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여 아동의 사회화를 특정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가 태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화를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태도의 속성에 근거한다. 먼저 태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보다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 발달시기에 걸쳐 확립된다는 점에서 사회화의 개념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Allport, 1955). 따라서 아동이 태도를 확립하는 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인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나 태도가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부모와 자녀 간 태도의 유사성은 자녀의 사회화 수준을 반영하는 단서로 작용한다(Gecas, 1991).

또한 Heider(1944)는 개인의 태도는 특정 타인이 갖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균형 혹은 일관성이 따르며, 특히 타인이 중요한 인물일수록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만약 개인과 타인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관계 간에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타인과 유사한 태도를 확립하게 된다. 이를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양육을 책임지면서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양상이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태도는 부모가 지닌 사회문화적 지위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발달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제공자가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위가 높고,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유사한 성향을 보일수록 수용자의 태도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Rosenberg & Hovland, 1960).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는 이주민 어머니에 비해 사회문화적 지위가 높고 구성원들과 관련된 중대사를 결정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

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며, 결국 아버지의 태도와 유사한 형태의 태도를 확립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탐색한 박찬옥과 이은경(2011)은 이주민 어머니에 비해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가부장 중심적인 문화에 의해 이주민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한국인 아버지가 세대 간 태도를 전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부모의 태도는 부모 자신이 직접 보고한 태도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태도에 주목하여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나(Acock & Bengston, 1980; 송순·신현실, 2002), 각 변수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연구들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직접 보고한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왔다(Hoge, Petrillo, & Smith, 1982; 백지숙·박성연,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직접 보고한 문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특정 행위 혹은 관계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Acock, 1984; Glass et al., 1986; Whitbeck & Gecas, 1988). 예컨대 부모의 사회화 활동이나 부모-자녀관계는 세대 간 태도 전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들로 알려져 있다(Glass et al., 1986). 사회화 활동이란 부모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활동으로, 크게 은연중의 활동과 의도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연중의 활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관을 은연중에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의도적인 활동은 부모가 자녀를 사회화하려는 부모의 의도적인 노력이 내포된 행동을 가리킨다.

부모-자녀관계 또한 자녀의 사회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Whitbeck & Gecas, 1988).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책임지는 동시에 최초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이다(Pattnaik, 2003). 따라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과 질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부모에 대하여 인지하는 애착이나 친밀감, 만족도는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들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를 연결하며, 그 결과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결정할 수 있다(Sears, Maccoby, & Levin, 1957; Parke & Buriel, 2006; 최경일 · 김미영, 2016).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개념에 주목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자녀가 내면화하여 고유의 태도를 확립하는 과정을 사회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모의 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사회화 이론의 경험적 연구에 대한 검토 : 연구모형의 도출

사회화 이론은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적합한 분석 틀로서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주제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인구학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대상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될 수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한 예로 O'Bryan, Fishbein, & Ritchey(2004)은 부모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녀의 편견과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임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를 시행한 Sinclair, Dunn & Lowery(2005)은 인종차별 태도에 대한 세대 간 태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자아개념, 종교, 식습관, 정치적 이슈, 물질주의 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간 태도 전이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Baker, Whisman, & Brownell, 2000; Pinquart & Silbereisen, 2004; Zentner & Renaud, 2007; 백지숙 · 박성연, 2004).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이 태도를 확립하는 데에 부모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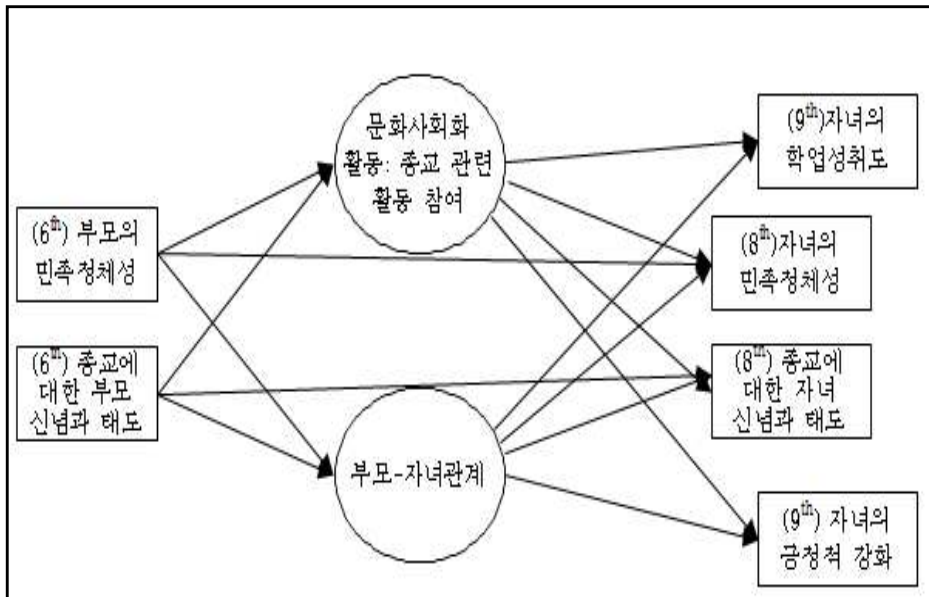
한편으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있다.

먼저 부모의 사회화 활동이 세대 간 문화에 대한 태도 전이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제시한 예로는 허청아(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허청아(2014)는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는 이주민 어머니가 모국어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문화사회화 활동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사회화 활동이 세대 간 태도의 전이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기존연구들은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을 모국어 학습 활동으로 제한한 반면, 국외 연구들은 모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가정 외 공간에서 부모가 수행하는 문화사회화 활동에도 주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일한 국적 출신 구성원들로 구성된 모임 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은 모국 문화에 대한 부모의 애착이 높을수록 문화사회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모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제시하였다(Casey & Dustmann, 2010; Imbens-Bailey, 1996).

부모-자녀관계 또한 세대 간 언어와 문화에 대한 태도 전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uo & Wiseman, 2000; Oh & Fuligni, 2010). 이는 특히 문화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언어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가족구성원 간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오며, 나아가 문화적 가치관의 공유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Luo와 Wiseman(2000)의 연구에서는 소수언어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문화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Oh와 Fuligni(2010) 또한 가족 응집성이 소수언어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 전이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부모의 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대 간 태도 전이 과정에서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 간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소수집단 부모의 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로는 Joyce(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소수집단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종교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종교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에서 종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 변인으로는 종교에 대한 인식과 신념, 신앙심과 관련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6학년(1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종교 관련 태도와 민족정체성이 독립변수로, 9학년(15세)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 강화, 8학년(14세) 자녀의 종교 관련 태도와 민족정체성 변수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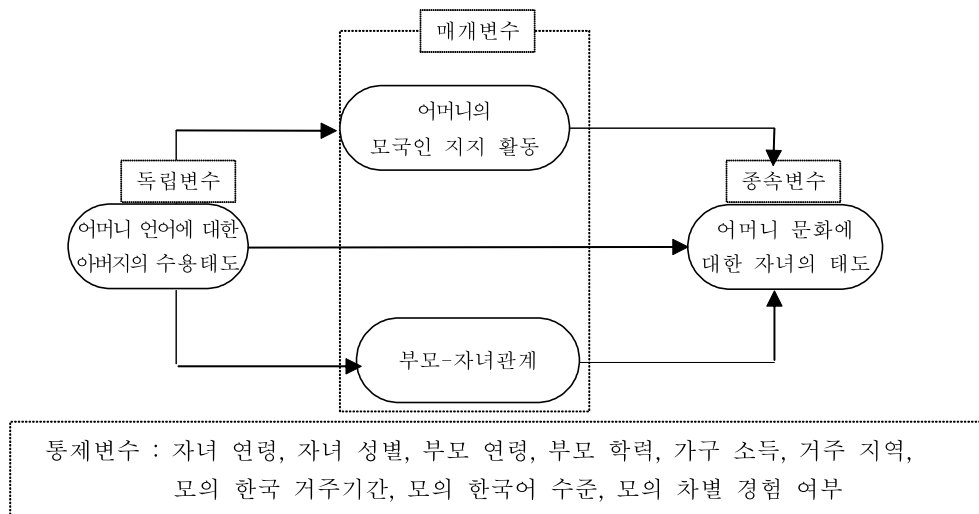


(그림 2) Joyce(2012)의 연구 모형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매개변수로 투입되었다. 먼저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에는 부모의 종교 활동 참여와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 변인이 활용되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로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가족응집성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종교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Joyce(2012)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부모 연령, 부모 학력과 가구 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개념적 모형을 구상하였다. 이는 Joyce(2012)의 모형을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소유한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두 변인 간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림 3] 본 연구의 연구 모형

제3절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태도란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Siragusa & Dixon, 2008). 태도는 개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나아가 행위의 근거가 되는 요소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로 내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인 Allport(1955)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 확립하는 심리적 상태를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Krueger와 Reckless(1931)는 태도를 대상물에 대하여 특정한 형태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획득된 경향으로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태도를 특정 대상에 대한 심리적 평가의 총체로서, 좋음-나쁨, 호감-비호감 등과 같은 개인의 내부적, 외부적 인지 영역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Eagly & Chaiken, 1998; Fishbein & Ajzen, 1986). 이상과 같은 태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태도란 경험에 근거하여 개인이 특정 환경이나 대상에 대하여 내리는 심리적 평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태도는 크게 감정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인지적(Cognitive)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Eagly & Chaiken, 1998). 먼저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대상물에 대한 개인의 관념적 지각에 관련된 것으로 대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나 신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념이다(Thurston, 1931). 다음으로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대상에 대한 선호나 관심 등의 감정적 측면에 대한 반응으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Himmelfarb & Eagly, 1974). 마지막으로 태도의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심리적 상태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태도의 구성 요인들은 일정한 구조로 연결되어 개인의 행동과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인간 개개인은 적어도 하나의 집단에 소속된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유문화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소속된 문화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나 신념, 가치관은 문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소이자, 민족 집단의 전통과 관습을 세대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기제로 작

용한다(Berry, 2005). 이와 같은 논의를 다문화가정 자녀에 적용해보면, 문화에 대한 태도는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 요인을 동시에 포함할 것이다. 주류사회에서 성장하는 자녀에게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소수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또한 자녀의 이상적인 이중문화 적응을 돕고 다문화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발달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주민 부모 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여 왔다(김승경·양계민, 2012; 은선경, 2010; 이상균 외, 2012; Lee, 1982). 예컨대 김승경과 양계민(2012)은 이주민 부모 나라에 대한 자녀의 관심과 애착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은선경(2010)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주민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결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가정 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균 외(2012)의 연구에서도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태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소수문화의 가치를 배제하고, 주류문화만을 수용하는 경우 열등감이나 우울, 위축감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1982).

나아가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기에 확립하는 문화적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란 개인이 소속된 민족 집단에 대해 갖는 소속감이나 민족 구성원과 느끼는 연대감의 감정으로(Phinney & Devich-Navarro, 1997), 주로 민족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에 걸쳐 확립된다(Johnson et al., 2007). 소수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소수집단 자녀는 문화적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확립하며, 나아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대처 능력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jfel & Turner, 1979; Shrake &

Rhee, 2004; Phinney & Chavira, 1992).

이상의 문헌들은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문화적응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고, 다문화사회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주민 어머니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어머니 문화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개입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절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

1. 부모의 다문화 수용태도에 대한 이해

다문화 수용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ennett & Bennett, 2003). 다문화 수용은 어떠한 차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상이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성 차원에서 본 다문화 수용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모든 문화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상수 외, 2012). 또한 관계성 차원에서 다문화 수용이란 다른 민족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집단 간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를 가리킨다(Edmonds & Killen, 2009). 보편성 차원에서 다문화 수용은 문화적, 인종적인 차이를 포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민무숙 외, 2012).

또한 다문화수용은 태도의 측면에서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김미진, 2012). 예컨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는 인지적 요인, 새로운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며 타문화 집단 일원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는 정서적 요인, 타문화 집단 일원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태도는 행동적 요인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다문화 수용은 이주민에 대한 친밀도나 다문화에 대한 지향성,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과 같이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황정미 외, 2007; 양계민, 2009; 윤인진·송영호; 2009).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다문화수용은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타집단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로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인지 요소로 볼 수 있다.

Bennett(1993)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 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이하 DMIS)에 의하면 다문화 수용태도는 부정, 방어, 축소, 수용, 적응, 통합의 여섯 단계를 거쳐 확립된다. 그가 제시한 여섯 단계들을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과 방어, 축소는 자신이 소속된 문화가 사회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문화는 회피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단계로, 이들을 통틀어 자민족중심주의적(Ethnocentric) 태도로도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수용, 적응, 통합은 자신의 문화와는 상이한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문화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민족 상대주의적(Ethno-relative)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배재정, 2010). 각 단계에 있는 개인은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하다(Paige, Jacobs-Cassuto, Yershova, & DeJaeghere, 2003). <표 1>은 Bennett(1993)이 제시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Bennett(1993)의 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형

Denial 부정	Defense 방어	Minimization 경시	Acceptance 수용	Adaptation 적응	Integration 통합
자민족중심주의적 태도 (Ethno-centric)			민족상대주의적 태도 (Ethno-relative)		

이와 같이 문화간 감수성 발달 이론은 단계별 개인의 다문화 수용태도

양상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각 민족 집단이 소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하여 집단별 문화 수용태도를 좀 더 면밀히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Berry(2005)는 문화접변 모델을 통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 수용태도를 설명하였다. 문화접변 모델은 소수집단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에 있어 주류집단이 갖는 문화 수용태도가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주류집단의 문화 수용태도는 크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Berry, 2005). 동화주의는 주류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소수문화는 배제하면서, 소수문화가 주류문화로 흡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주장한다. 반면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소수문화와 주류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 태도이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수문화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민족 상대주의적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소수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에 주류집단 부모의 문화 수용태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주류집단 부모가 이주민 배우자의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에 따라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국외 연구에서도 소수문화에 대한 주류집단 부모의 태도가 소수집단 자녀의 태도 간 밀접한 관계를 검증하여 왔다(趙衛國, 2007; Stepney et al., 2015; Furnham & Stacey, 1991). 趙衛國(2007)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일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태도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가 정적 관계에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Stepney 외(2015)는 백인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흑인 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흑인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 성별과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간에는 정적

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Furnham과 Stacey(1991)는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부적 태도에는 소수문화에 대한 부모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소수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수용태도가 언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Giles & Johnson, 1987; Baker, 2002; Fillmore, 2000).

한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정정화(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정화(2014)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 어머니, 초등학교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소득, 자녀 연령, 자녀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아버지의 소수문화 수용태도 및 어머니의 자문화 전달태도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문화를 자녀에게 전달할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정정화(2014)의 연구를 제외하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세대 간 문화 관련 태도 전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내 연구들의 대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단순 기술 분석을 통해 부모의 문화 수용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문화 수용태도를 설명하는 이론과 경험적 근거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화 수용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형태를 지니며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언어에 주목하였다.

2.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인 중에서도 언어에 주목하였다. 언어는 민족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가장 가시적으로 표출하는 요소이자, 나아가 구성원들이 지닌 삶의 방식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족 언어에 대한 이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집단 내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Schieffelin, 1990).

이러한 민족 언어의 역할에 주목한 다수의 학자들은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상징체계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Galisson(1991)은 언어가 문화를 이끄는 동력이자 거울의 역할을 수행함을 주장하면서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공생관계(symbiosis)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Agar(1994)는 언어가 문화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관습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요소는 서로 불가결의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두 요소를 결합한 '언문화(languaculture)'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또한 Weaver(1986)는 문화를 빙산으로, 언어를 단지 눈에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면서 언어가 문화를 표출하는 요소임을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언어는 민족 집단의 고유문화를 세대 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는 구성원들이 문화와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 행동 양상을 공유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Heller, 1987). Sapir와 Whorf(1949)이 주장한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에서도 언어가 민족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결정하며, 세대 간 문화의 유지 혹은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Hoijer, 1954). 예컨대 특정 언어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집단 고유의 문화 유지를 가져오는 반면에,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문화의 소멸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논의를 다문화가정에 적용해보면 이주민 부모의 언어 또한

문화 그 자체를 반영하는 고유 유산으로서 가정에서 주류언어와 함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 언어(home language)는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의 인성 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Sapir, 1968).

부모가 언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지해주는지의 여부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결정할 수 있다(Luo & Wiseman, 2000). 그러나 소수언어의 경우 주류집단 구성원인 부모의 태도에 의해 가정언어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Chen, 2010). 특히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가부장적 사고와 이주민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아버지로 하여금 이주민 배우자 언어를 배제하고, 가정 언어로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진대연·강복정, 2011). 결국 이러한 양상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문화에 대한 태도에 한국인 아버지의 언어 수용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두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태도 변인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 태도가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로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실천 및 정책적 개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절 매개변수로서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 영향을 매개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자녀가 소수문화를 긍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개입 지점을 밝힌 연구들이 증가하여 왔다.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이 자녀의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집단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 혹은 부모-자녀관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활용하여 한국인 아버지의 언어 수용태도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소수집단 부모가 수행하는 사회화 활동 중에서도 모국인 지지 활동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사회화 활동(cultural socialization practice)이란 부모가 소수집단 부모가 자녀에게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지식, 경험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유형을 의미한다(윤수현·Chung, 2015).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 가치관의 전이를 돕는다는 점에서 문화사회화 활동은 세대 간 문화자본(intergenerational ethnic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Borjas, 1992).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문화사회화 활동은 소수집단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발달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sizmadia, 2011; 윤수현·Chung, 2015; Thompson, Anderson, & Bakeman, 2000).

모국인 지지 활동 또한 은연중에 나타나는 문화사회화 활동 유형으로 소수집단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국인 지지 활동은 비록 자녀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참여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나아가 문화에 대한 자녀의 이해와 애착을 높인다(Waters, 1994;

Bankston & Zhou, 1995; Lee, 2013). 이와 같은 논의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Lee(2013)는 중국계 이주민가정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이주민 부모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민 부모의 적극적인 모국인 활동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소수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ssen(2015)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거주 지역, 가족 구조를 통제한 후에도 소수집단 부모가 동일 국적 출신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모국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소수집단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국내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이주민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이소영, 2013; 조창환·성윤희, 2010; 김현미, 2014). 예컨대 이소영(2013)은 결혼이주인 어머니가 참여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 중 모국인 지지가 소수문화를 유지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침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모국인 지지 활동은 이주민 어머니로 하여금 모국문화에 대한 친화력을 갖게 하며(조창환·성윤희, 2010), 모국문화를 자녀에게 전달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2014).

한편 이주민 부모가 모국인 지지 활동을 비롯한 문화사회화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주민 문화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Lee, 2010). 특히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 일원이 소수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모국인 지지 활동의 참여 수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윤수현·Chung, 2015). 이를 검증한 Kasuga-Jenks(2012)는 미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주류집단 부모가 소수 인종과 문화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주민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류집단 부모가 소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이주민 부모가 모국인 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소수문화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인식과 태도는

이주민 여성의 모국인 모임이나 활동 수준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7).

그 외에도 소수집단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서는 거주 지역 및 소수집단 부모의 연령, 주류사회에서의 거주 기간, 차별 경험을 들 수 있다. 먼저 거주 지역이 이주민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민무숙 외(2013)의 연구에서는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모국인 지지 활동이 저조한 반면, 이소영(2013)의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이소영, 2013),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김두섭, 차승은, Kim, 2008) 모국인 지지 활동에의 참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이주민들이 특히 결혼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국인 지지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또한 차별 경험의 경우 이주민 부모가 차별을 경험한 경우에 모국인 지지 활동에의 참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무숙 외, 2013).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주류집단 부모의 소수문화 수용태도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ey & Dustmann, 2010; Imbens-Bailey, 1996).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국 문화에 대한 소수집단 부모의 애착이 높을수록 모국인 지지 활동이 활발하며,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민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ey & Dustmann,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가 소수문화를 수용할수록 이주민 부모가 모국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Imbens-Bailey, 1996).

이와 같은 논의들은 모국인 지지 활동이 소수집단 부모가 참여하는 고유의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자녀의 문화적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화사회화 활동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들은 문화사회화 활동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언어를 가르치는 활동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허청아, 2014; 정정화, 2014). 일부 연구

에서 모국인 지지 활동을 다루기는 했으나, 정작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저조한 문화 수용태도로 인해 이주민 어머니는 모국인과의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주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인 지지 활동이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매개변수로서의 부모-자녀관계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아동이 가지는 상호작용의 주요 중심지로서 가장 기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태도를 비롯한 자아개념과 성격 및 행동 양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이다(Skeels, 1966).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와 문화에 대한 인식, 정체성 등의 긍정적인 인지 발달을 완충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김미예, 임지영, Chung, 2012; 박명숙, 2010; 신부용, 2014; 이원재 · 김선, 2014).

또한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고유의 태도를 확립하도록 돕는 사회화 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Vygotsky, 1978). Vygotsky(1978)가 주장한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협력적인 대화(collaborative dialogue)를 통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착을 확립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을 내면화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사회화가 원활하며, 세대 간 태도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Murray & Mulvaney, 2012).

다수의 국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에 주목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여 왔다(Kiang et al., 2010; Stepney et al., 2015; Miville et al., 2005; Chong, 2012). 예컨대 Kiang 외(2010)의 연구에서는 라틴계, 아시아계, 유럽계 이주민가정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ney 외(2015)의 연구에서도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중 부모와의 유대가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ville 외(2005)는 부모에 대한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은 소수집단 자녀가 부모의 문화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소수언어를 학습하려는 의지가 높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Chong(2012)의 연구에서는 백인 아버지와 이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주민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부모의 긍정적인 문화 수용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공유된 문화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수록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인지하는 공감대나 애착, 친밀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가정에서 유지해오던 전통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특정 문화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애착이나 친밀감을 갖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Baumrind, 1991).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가 사회문화적 지위를 중시하는 정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예컨대 부모가 권력이나 지위보다는 가족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개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가정 언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Bernstein, 1971).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주류집단 부모는 부모-자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이주민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배우자의 문화를 소유한 자녀 또한 부모에게서 친밀감과 유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언어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며,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요소라는 점에 근거했을 때 소수 언어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일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연숙(2014)의 연구에서도 주류언어만이 사용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경(2011)은 한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이주민 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과 이해가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가 인지한 가족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주민 모의 출신 국적이나 한국어 능력과 같은 다문화적 특성보다는 이중문화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격려가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주민 어머니의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해와 지지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소수문화에 대한 주류집단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Oh & Fuligni, 2010; Luo & Wiseman, 2000). Oh와 Fuligni(2010)은 라틴계와 중국계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소수언어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중국계 이주민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Luo와 Wiseman(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 부모 연령 및 가구소득을 통제하더라도 부모-자녀관계가 소수 언어에 대한 부모의 태

도와 소수언어를 학습하려는 자녀의 의지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소수언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를 가정에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수언어 수용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매개역할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이주민가정 자녀와는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중문화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매개경로의 맥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사회화 활동과 관련하여 이주민 부모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세대 간 태도 전이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사이의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6절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원의 인구학적 요인과 소수민족 부모의 이주 관련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으로서는 자녀 성별, 자녀 연령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 수 있다. 자녀 성별의 경우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윤인진·채정민, 2007; 여성가족부, 2013; 이현주·강현아, 2011),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윤인진과 채정민

(2007)은 여아가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높는데 비해 남아는 그 반대인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Cross와 Madson(1997)은 여아의 경우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반면, 남아는 부모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문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녀 연령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정화, 2014; 이현주·강현아, 2011; 허청아, 2014). 예컨대 정정화(2014)와 이현주·강현아(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허청아(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다문화가정 일원인 것에 대한 자긍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과 문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도 부모 학력과 가구 소득은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예컨대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소수문화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Phinney et al., 2001; Amily & Norina, 2010). 그리고 가구 소득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소수집단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경험하면서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hinney et al., 2001; Umana-Taylor & Fine, 2004).

한편으로 이주 관련 변인으로서는 소수집단 부모의 주류사회 거주 기간과 주류언어 구사력, 차별 경험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집단 부모가 주류사회에 더 오래 정착할수록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는 낮아지며, 그 결과로 자녀 또한 소수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밝혔다(김정원, 2006; 이소영, 2013). 마찬가지로 소수집단 부모의 주류언어 구사력이 높을수록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Ontai-Grzebik & Raffaelli, 2004). 그리고 소수집단 부모의 차별이나 편견 경험은 주류문화에 대한 반감과 소수문화에 대한 애착을 일으킴

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Inman, Howard, Beaumont, & Walker, 200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이주 관련 변인을 통제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으로서는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부모 학력, 부모 연령, 가구소득, 거주 지역을, 이주 관련 변인으로서는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과 한국어 수준, 차별 경험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사회화 이론을 활용하여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세대 간 태도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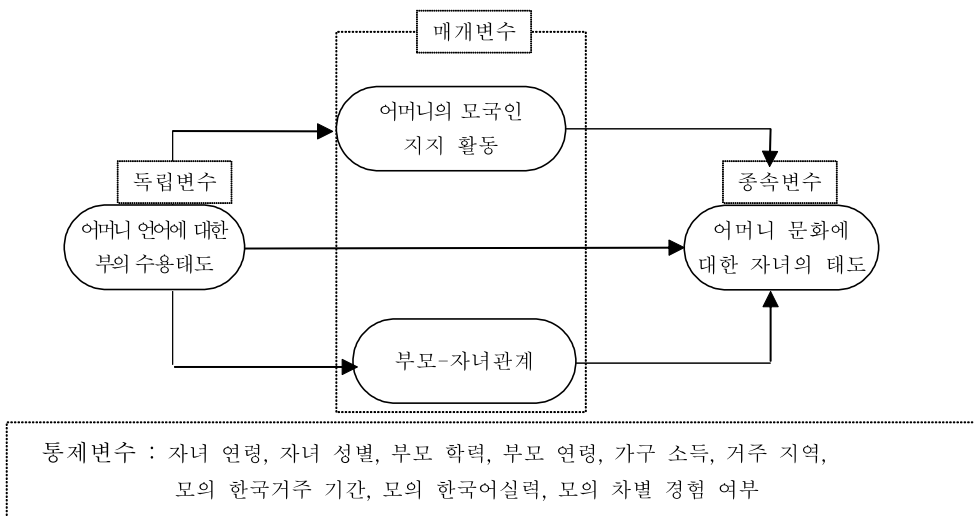
한편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후기에 해당하는 9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부모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8세 이상 12세 사이의 아동기 후기에 주로 발달하며, 나아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진다는 논의에 근거한 것이다(Johnson et al., 2007). 이와 같은 발달 시기에서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이후 성인기까지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민 어머니 모국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 태도로부터 나타나는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결과에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제3장 연구 모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하여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이며, 종속변수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이다. 또한, 매개변수는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이며,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및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소득, 거주 지역, 이주민 모의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수준, 차별경험 여부를 활용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제2절 연구 가설

[그림 2]의 연구모형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어머니가 모국인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자녀관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 부모-자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4]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4-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 태도에 의해 설명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일정 부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여부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2.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 태도에 의해 설명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일정 부분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2년 실태조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이어 2012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소재하는 850개의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제2차 실태조사이다.

2012년 조사는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2009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기기입식 방법만을 사용하였다면 2012년 조사에서는 통계청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접목시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책 대상에 포함된 귀화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다문화가족 15,341 가구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민·귀화자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결혼이주민·귀화자의 배우자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이들 가구의 만 9~24세 자녀 총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여 각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본 연구는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귀화자 여성,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구 고유번호(Family code)에 따라 구분된 각 가구원 자료를 병합하였다. 또한 가구별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정의 경우 자녀 중 한 명을 임의 선택(random selection)하여 각 가구마다 한국인 아버지, 결혼이주민 어머니, 다문화가정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조작하였다. 또한 국내 출생자녀와는 다른 문화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중도입국자녀 가정이나 제2언어로 영어를 활용하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가 포함된 가정, 재혼하거나 사별한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 대상으로 만 9세 이상 12세 이하의 학령기 자녀와 한국인 아버지, 이주민 어머니로 구성된 총 1,100 가구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묻는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전혀 관심이 없다’=1점, ‘관심이 없다’=2점, ‘보통이다’=3점, ‘관심이 있다’=4점, ‘매우 관심이 많다’=5로 점수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당신은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문항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점, ‘자랑스럽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랑스럽다’=4점, ‘매우 자랑스럽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지막 문항은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로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642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수용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평소 집에서)외국인 배우자가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준다', '나는 외국인 배우자 나라의 말을 배운 적이 있다', '나는 외국인 배우자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로, 이주민 배우자 언어에 대한 관심과 수용, 이해 등의 태도로 볼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항의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변수를 생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 아버지의 언어 수용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703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소수집단 부모가 수행하는 문화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이다. 문화사회화 활동의 경우 이주민 어머니가 참여하는 모국인 지지 활동 유무를, 부모-자녀관계로는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1)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의 유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누구와 함께 의논하거나 활동하는지를 묻는 네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나 집안에 관한 일을 누구와 의논합니까?’, ‘일자리와 관련하여 누구와 함께 의논합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누구와 의논합니까?’, ‘여가 및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어머니에 의해 제시된 응답을 활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선택지에는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그리고 ‘아무도 없음’ 중에서 다중응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모국인’=1, 그 외 응답인 ‘한국인’, ‘외국인’, ‘아무도 없음’=0으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Kuder-Richardson 20(KR20) 기법¹⁾을 사용한 결과, 신뢰 계수가 .816으로 나타나 안정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 부모-자녀관계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활용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묻는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문항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이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1점, ‘만족한다’=2점, ‘보통이다’=3점, ‘불만족스럽다’=4점, ‘매우 불만족스럽다’=5점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역코딩한 후, 두 문항에 대한 값을 평균화하여 부모-자녀관계 변수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746으로 나타났다.

1) Cronbach의 계수가 연속변수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반해서 Kuder와 Richardson(1937)가 고안한 Kuder Richardson 20(KR 20)은 이분채점문항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즉, 특정 문항에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범위가 0과 1로 할당하는 경우의 내적일관성계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Kuder & Richardson, 1937).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기존 연구들에서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크게 가족구성원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모의 이주 관련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구학적 변인

인구학적 변인으로서는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거주 지역을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1) 자녀 성별

자녀 성별은 ‘여성’=1, ‘남성’=0으로 처리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

(2) 자녀 연령

자녀 연령은 조사 기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조사된 원 자료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3) 부모 연령

부모 연령은 2012년 조사 기준으로 만 나이로 조사된 원자료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모형에 각각 투입하였다.

(4) 부모 학력

부모 학력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무학’=0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대학졸(4년제 미만)’=4, ‘대학교졸(4년제 이상)’=5, ‘대학원졸 이상’=6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 이상’을 기

준변수로 하여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를 가변수로 설정하여 분석모형에 각각 투입하였다.

(5) 가구소득

응답자에게 지난 1년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소득의 응답 범위는 '50만원 미만'=1, '50-100만원 미만'=2, '100-200만원 미만'=3, '200-300만원 미만'=4, '300-400만원 미만'=5, '400-500만원 미만'=6, '500-600만원 미만'=7, '600-700만원 미만'=8, '700만원 이상'=9로 구분되었다.

(6) 거주 지역

거주 지역에 대한 통제변수는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동부(도시 지역)'=1, '읍면부(읍면 지역)'=0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이주관련 변인

이주관련 변인으로는 모의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수준, 차별 경험 여부를 사용하였다.

(1) 모의 한국 거주 기간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수행된 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모가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기 시작한 년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연도만큼을 빼 것을 한국 거주 기간 변수로 활용하였다.

(2) 모의 한국어 수준

모의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영역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를 묻는 네 문항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잘한다'=1점, '잘하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서툰 편이

다'=4점, '매우 서툴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Cronbach's $\alpha=0.953$).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역코딩한 후 평균화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한국어 수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3) 모의 차별경험

모의 차별경험 변인은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차별 경험 이 있다'=1, '차별 경험이 없다'=0으로 이분범주화 하였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자료의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분석 및 변인들 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SPSS 19.0을 활용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측정하여 자료의 일변량 정규성 및 다변량 정규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또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확인하고,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과(direct effect) 및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 효과(total effect)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기존 통계기법에 비해 구조방정식 모형이 갖는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은 측정오차를 고려한 순수한 구조계수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귀분석을 비롯한 기존 분석들은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 후 필요에 따라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변수를 제외하는데, 이때 선정된 각 측정값을 오류를 내포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분석 시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1). 반면에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오차와 구조오

차를 포함함으로써 모형의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계분석 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다중 지표들이 지니는 측정오차를 줄이고, 모형을 구성하는 개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인과구조 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학식·임지훈, 2007).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기법은 매개변수의 사용이 기존 통계기법에 비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개변수는 특성상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가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함께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Hair et al., 2010). 또한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들이 낮은 신뢰도를 갖는 지표로 측정되었을 경우, 종속변수에 미치는 매개변수의 효과는 과소평가되며, 반대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Kenny et al., 1998). 반면에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수의 매개변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구조오차와 측정오차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의 다중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더욱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on & Kenny, 1986).

무엇보다도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즉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적 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평가할 때 구조방정식 모형은 강력한 통계적 도구가 될 수 있다(Hair et al., 2010). 나아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확인하고,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과(direct effect) 및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 효과(total effect)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라는 두 매개변인들을 활용하며,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수립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기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 간의 효과들을 검증하는 데에 구조방정식 모형 기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

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기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인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이끄는 가족구성원들이 소유한 심리사회적 변인들 간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모수의 추정방법으로는 결측치를 추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 lihood method, FIML)을 사용하였다. 또한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로 이루어진 측정모형을 설정한 후,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로는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지수(χ^2), 기초부합지수(GFI), 오차 평균 제곱근(RMSEA)를, 제안모형이 기초모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보여주는 증분적합지수인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비표준적합지수(TLI), 표준적합지수(NFI)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 수준을 측정하는 간명적합지수로는 PCFI(Parsimony adjusted CF)와 PRATIO(Parsimony Ratio)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이다. 부트스트랩 기법은 여러 개의 매개변수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으며 표집분포의 모양에 대한 가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따라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때에 회귀계수에 대한 정규성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된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1,000개의 표본을 지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의 검증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일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적용하기 위해 단일대치법 중에서 결측이 있는 변수의 평균값을 결측치에 투입

하는 평균대치법(Mean Imputation)을 사용함으로써, 결측치 처리로 인해 유의한 결과가 과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Rubin, 2004). 또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하고, 가상변인의 경로에 대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실시하였다. 각 경로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1).

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자녀 성별 및 자녀 연령, 부모 학력, 부모 연령, 가구 소득, 거주 지역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주 관련 변인으로는 모의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수준 및 차별경험 여부를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00)

변수		범주 구분/(최솟값-최댓값)	빈도(명)	백분율(%)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1)	513	46.6
		남성(0)	587	53.4
	연령	9세	272	24.7
		10세	245	22.3
		11세	296	26.9
		12세	287	26.1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부 연령	30대	57	5.2
		40대	681	61.9
		50대	349	31.7
		60대	13	1.2
	모 연령	20대	1	0.1
		30대	380	34.5
		40대	621	56.5
		50대	96	8.7
		60대	2	.2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43	22.1
		고졸 이하	589	53.5
		대졸 이상(1)	268	24.4
	모의 학력	중졸 이하	128	11.6
		고졸 이하	552	50.2
		대졸 이상(1)	420	38.2
	가구 소득(월 소득)	100만 원 미만	19	1.7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99	27.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59	32.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10	19.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77	7.0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25	2.3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5	2.3
		700만 원 이상	30	2.7
	거주 지역	동부(1)	635	57.7
		읍면부(0)	465	42.3
이주 관련 특성	모의 한국 거주 기간	10년 이하	111	10.1
		11년-15년	691	62.8
		16년-20년	276	25.1
		21년 이상	22	2.0
	모의 차별경험 여부	있다(1)	452	41.1
		없다(0)	648	58.9
변수		범주 구분/(최솟값-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이주 관련 특성	모의 한국어 수준	1.00-5.00	3.93	.97

먼저 조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남아가 587명으로 전체의 53.4%를, 여아가 513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연령의 경우, 9세가 272명(24.7%), 10세가 245명(22.3%), 11세가 296명(26.9%), 12세가 287명(26.1%)으로 나타나 11세의 자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 연령의 경우, 30대가 57명(5.2%), 40대가 681명(61.9%), 50대가 349명(31.7%), 60대가 13명(1.2%)명으로 나타나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의 연령은 20대가 1명(0.1%), 30대가 380명(34.5%), 40대가 621명(56.5%), 50대가 96명(8.7%), 60대가 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학력의 경우에 부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243명(22.1%), 고

줄 이하가 589명(53.5%), 대줄 이상이 268명(24.4%), 모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128명(11.6%), 고졸 이하가 552명(50.2%), 대졸 이상이 420명(38.2%)로 나타나 부와 모 모두 고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 아버지의 고학력자 비율은 결혼이주민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국내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저학력자 남성과 이주민 여성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전체 표본에서도 결혼이주민 여성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23%이고, 한국인 배우자는 이의 약 절반인 1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표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9가구(1.7%),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99가구(27.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59가구(32.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10가구(19.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77가구(7.0%),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이 25가구(2.3%),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이 25가구(2.3%), 700만 원 이상이 30가구(2.7%)인 것으로 나타나,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중하위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거주 지역은 동부가 약 57.7%, 읍면부에는 약 42.3%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 이주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의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하가 111명(10.1%),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691명(62.8%),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276명(25.1%), 21년 이상이 22명(2.0%)으로 11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한 어머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한국어 수준의 범위는 최소 1점 최소 5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균은 3.93점(SD=.9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의 차별 경험 여부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52명(41.1%), 차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48명(58.9%)으로 과반수의 이주민 모가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각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이며, 매개변수는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이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1

(n=1100)

	사례 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가정 내 언어 사용 격려	1100	3.30	1.00	5.00	1.37
언어에 대한 관심	1100	2.69	1.00	5.00	1.42
언어를 배운 경험	1100	3.03	1.00	5.00	1.48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집안일 의논	1100	(46.3)	0	1	.49
일자리 의논	1100	(23.7)	0	1	.42
자녀 교육 의논	1100	(30.3)	0	1	.45
여가 및 취미 활동	1100	(34.8)	0	1	.47
부모-자녀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1100	4.19	1.00	5.00	.93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1100	4.45	1.00	5.00	.74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민족성에 대한 관심	1100	3.66	1.00	5.00	1.08
문화에 대한 자긍심	1100	3.63	1.00	5.00	.97
언어에 대한 태도	1100	3.93	1.00	5.00	1.25

먼저 독립변수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세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소 1점, 최대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정 내 언어 사용 격려는 3.30점, 언어에 대한 관심 2.69점, 언어를 배운 경험 3.03점으로 어머니 언어에 대한 관심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으로는 자국민들과 어려운 일, 일 자리,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의논하거나 취미, 여가 생활을 누구와 하는지를 묻는 네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이 1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국인과의 집안일 의논 비율이 전체의 46.3%, 일자리 의논이 23.7%, 자녀 교육 의논이 30.3%, 여가 및 취미 활동 참여가 약 34.8%인 것으로 나타나, 집안일 의논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일자리 의논 비중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만족도를 묻는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인지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4.19점,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4.45점으로 중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자녀의 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높고 이후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허청아, 2014; 황매향, 2006; 김영란 외, 2015), 비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외, 2015). 그러나 보다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자녀의 연령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경우, 민족성에 대한 관심, 자긍심 및 언어에 대한 태도 총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성에 대한 관심 3.66점, 문화에 대한 자긍심 3.63점, 언어에 대한 태도 3.93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정규성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인의 일변량 정규성, 결측값 비율 및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일변량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Skew)는 자료의

대칭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댓값이 3 이내의 경우에 관찰변인의 정규성에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첨도(Kurtosis)는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며, 절댓값이 10 미만인 경우에 정규성을 만족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왜도는 2, 첨도는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할 때 일변량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와 같이 12개의 관찰변인의 왜도 절댓값이 최소 .002에서 최대 1.28이며, 첨도 절댓값은 최소 .003에서 최대 1.98로 나타나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일변량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결측값 비율을 살펴보면, 부와 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각각 결측값이 발생하였으나 그 비율이 2%이내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에서 제공하는 Mardia(1974)의 다변량첨도(multivariate kurtosis) 값을 확인하였다. 다변량첨도의 절댓값이 1.96을, C.R은 5.99을 초과할 시 각 변수의 정규성 가정이 기각되는 것으로 설명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다변량첨도의 절댓값은 36.119, C.R. 값은 17.939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다변량 정규성이 가정되지 못할 때 최대 우도법에 의해 모수를 추정하면 표준오차와 카이자승값(χ^2)이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GLS(일반최소자승법), ADF(접근분포자유법),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이 활용되는데, 이 중 부트스트랩이 비정규 자료를 처리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배병렬,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2

(n=1,100)

변수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결측값 비율(%)
		지수(SD)	지수(SD)	
결혼이주된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				
	가정 내 언어 사용 격려	-.25(.074)	-1.064(.147)	0.0
	언어에 대한 관심	.30(.074)	-1.170(.147)	0.0
	언어 배움 경험	-.02(.074)	-1.336(.147)	0.0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집안일 의논	.150(.074)	-1.981(.147)	0.0
	일자리 의논	1.237(.074)	-.471(.147)	0.0
	자녀 교육 의논	.860(.074)	-1.263(.147)	0.0
	여가 및 취미 활동	.638(.074)	-1.596(.147)	0.0
부모-자녀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891(.074)	-.036(.147)	0.3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1.282(.074)	.942(.147)	0.1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민족성에 대한 관심	-.458(.074)	-.237(.147)	0.0
	문화에 대한 자긍심	-.059(.074)	-.426(.147)	0.0
	언어에 대한 태도	-.890(.074)	-.287(.147)	0.0
다변량 정규성		36.119	17.939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는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모국인 지지 활동($r=.142$, $p<.01$),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부모-자녀관계($r=.086$, $p<.01$), 그리고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r=.302$,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결

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가 모국인 지지 활동에 참여하며,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간 모든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들로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의 모든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 중에서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부모 학력, 가구소득과 모의 한국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r=.110, p<.01$),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r=-.095, p<.05$; $r=-.154, p<.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r=.077, p<.05$),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r=-.083, p<.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에서의 분산팽창인자(VIF) 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계수 값이 ± 0.8 로 나타나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Gujarati & Porter, 2010).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모두 ± 0.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IF)의 값이 1이상 2 미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10 이하였기 때문에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관찰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142**	1															
3	.086**	-.089**	1														
4	.302**	.149**	.191**	1													
5	-.024	.009	-.086**	.110**	1												
6	.015	.104**	-.120**	-.063*	.050	1											
7	-.126**	.042	-.064*	-.018	.036	.157**	1										
8	-.009	.158**	-.020	.011	.037	.141**	.240**	1									
9	-.094**	-.006	-.023	-.088**	-.001	-.015	-.080**	-.099**	1								
10	-.206**	-.009	-.053	-.054	.037	.045	.276**	.160**	-.572**	1							
11	-.114**	-.042	-.031	-.095**	.002	.026	.039	.014	.249**	.044	1						
12	-.191**	-.133**	-.031	-.154**	.021	-.062*	.069*	-.075*	-.066*	.251**	-.364**	1					
13	.160**	-.070*	.067*	.077*	-.013	-.006	-.160**	-.064*	-.157**	-.186**	-.198**	-.080**	1				
14	-.120**	.057	-.047	-.005	.051	.097**	.152**	.051	.007	.174**	.117**	.068*	-.175**	1			
15	.049	.118**	-.041	-.002	.013	.383**	.232**	.227**	-.101**	.118**	-.005	-.105**	.054	.075*	1		
16	-.084**	-.242**	.073*	-.083**	-.034	-.016	-.100**	-.088**	.084**	-.073*	.012	.067*	.142**	-.025	-.053	1	
17	.020	-.073*	.040	-.058	-.021	.024	.012	-.035	.011	-.001	.036	.003	.053	.064*	.017	.109**	1

* $p<.05$, ** $p<.01$, *** $p<.001$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2.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3. 부모-자녀관계 4.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5. 자녀 성별 6. 자녀 연령 7. 부 연령 8. 모 연령 9. 부 학력(고졸) 10. 부 학력(중졸 이하) 11. 모 학력(고졸) 12. 모 학력(중졸 이하) 13. 가구소득
14. 거주 지역 15. 모의 한국 거주기간 16. 모의 한국어 수준 17. 모의 차별경험 여부

제3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및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개념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모형 검토와 이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Anderson & Gerbing, 1988).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오류가 발생했을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 혹은 구조관계의 설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 연구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형 2단계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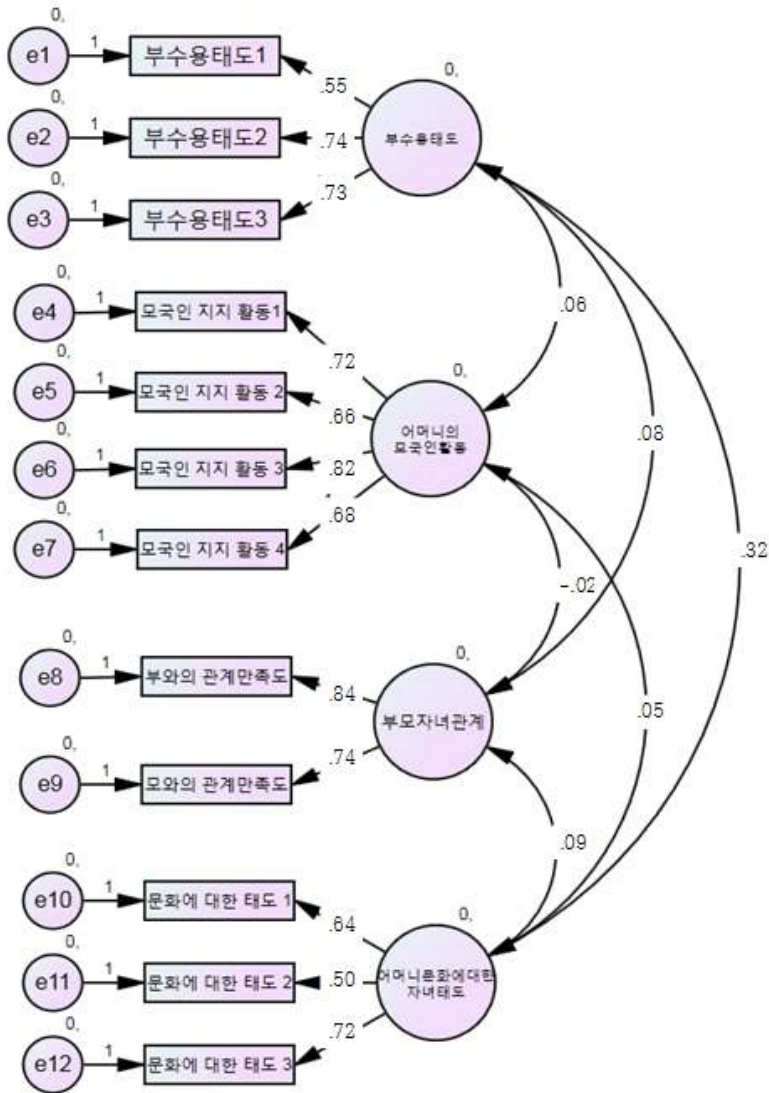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설계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으로 잠재변인,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 및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는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잠재변인들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를 외생변인으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내생변인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의 재표집화 횟수는 1,000회로 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트스트랩 반복횟수가 적어지면 검증력 손실(power loss)이 발생하기 때문에 $p < .01$ 수준에서는 1,000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다(Stine, 198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의 반복횟수를 1,000번으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1. 측정 모형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관찰변인이 얼마나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고, 잠재변인과 관찰변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맞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그림 3]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평가를 위해 모형이 자료에 통계적으로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 GFI, RMSEA, IFI, CFI, TLI, AGFI, NFI, PCFI,

PRATIO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적합
절대적합지수	χ^2	$p > .05$	118.73(df=48, $p < .001$)	미적합
	GFI	$> .90$.986	적합
	RMSEA	$p < .05$.037	적합
증분적합지수	IFI	$> .90$.978	적합
	CFI	$> .90$.978	적합
	TLI	$> .90$.970	적합
	AGFI	$> .90$.977	적합
	NFI	$> .90$.974	적합
간명적합지수	PCFI	$> .50$.701	적합
	PRATIO	$> .50$.711	적합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할 것으로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 적합도 지수 선택에 획일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형 분석에서 보고할 것으로 권장되는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로는 1) 카이자승값(χ^2), 2) RMSEA, 3) TLI, 4) CFI가 있다(문수백, 2013).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자승값(χ^2)은 작을수록, 유의수준인 p값은 클수록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다(배병렬, 2011). 그러나 카이자승값은 표본의 크기나 다변량 정상성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모형측정 변수가 많을 때는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평가지수로 볼 수 없다(Bollen & Long,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이자승값 외에 다른 적합도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외에

GFI(Goodness of Fit Index), 증분적합지수인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 Lewis Index), AGFI(Adjusted GFI)와 NFI(Normed Fit Index), 그리고 간명적합지수인 PCFI(Parsimony CFI)와 PRATIO(Parsimony Ratio)를 사용하였다.

각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hi^2=118.73(df=48, p<.001)$ 으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합지수인 GFI=.986, RMSEA=.037, 증분적합지수인 IFI=.978, CFI=.978, TLI=.970, AGFI=.977, NFI=.974, 간명적합지수인 PCFI=.701, PRATIO=.71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적합도 지수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변인들이 투입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을 설정한 후에는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요인계수 크기를 측정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 및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측정치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타당도는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인계수 크기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데, 그 크기가 .50 이상 .95이하일 때 측정모형은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Bagozzi, Yi, & Singh, 1991).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이자 독립변수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총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554~.734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모국인 지지 활동 변수를 구성하는 네 문항

에 대하여 요인부하량은 .660~.829, 부모-자녀관계를 구성하는 두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749과 .8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인은 소수문화에 관련된 민족성 및 자긍심, 언어에 대한 관심을 묻는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500에서 .725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오차(S.E)가 2.5를 초과하면 모델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관측변인의 요인부하량이 가지는 표준오차는 .04에서 .071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적절히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80이상이면 잠재변인 간에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의 범위가 .10에서 .46으로 나타나 측정모델의 변별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air et al., 1998). 본 연구에서 지표의 개념신뢰도 수준은 최소 12.50으로 나타나 제시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50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Ha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각 지표의 평균분산추출 값을 확인한 결과, 최솟값이 .656으로 모든 지표의 값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관측변인들이 적절한 수렴타당성과 변별타당성, 개념신뢰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측정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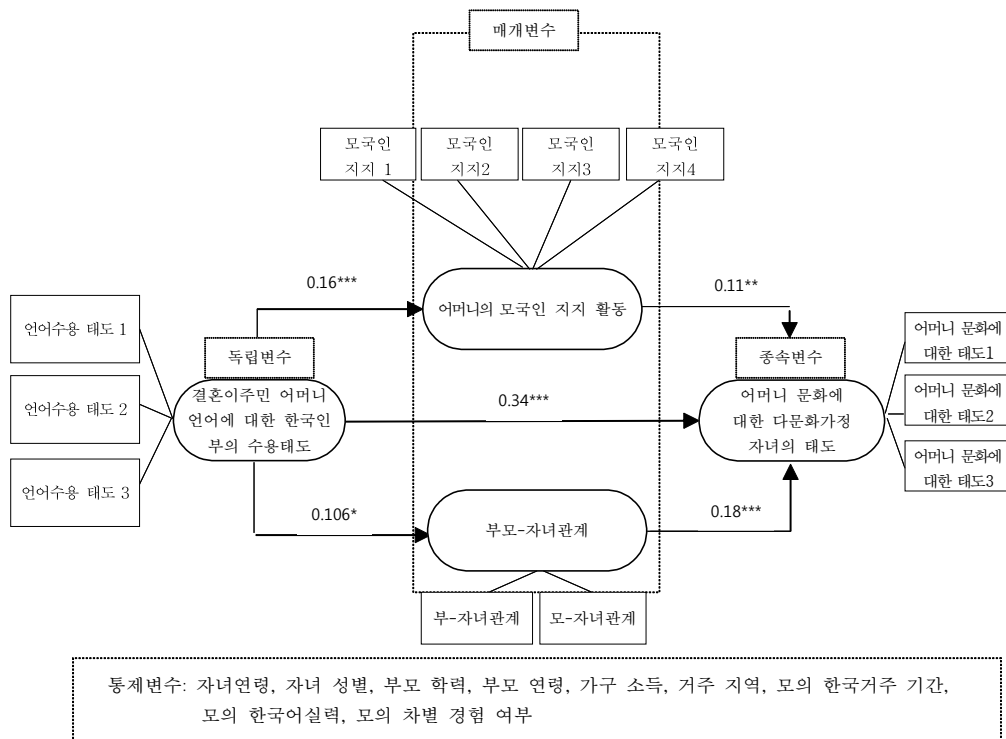
간 경로				경로계수		S.E.	C.R.	p	AVE
				B	β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 언어 수용태도 1		1.000	.554					
	← 언어 수용태도 2		.966	.742	.047	14.97	***		.656
	← 언어 수용태도 3		.710	.734	.061	13.98	***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 모국인 지지 활동 1		1.000	.729					
	← 모국인 지지 활동 2		1.190	.660	0.04	19.49	***		
	← 모국인 지지 활동 3		.888	.829	0.04	22.551	***		.947
	← 모국인 지지 활동 4		1.121	.689	0.04	19.639	***		
부모-자녀관계	← 아버지와의관계		1.000	.841					
	← 어머니와의관계		.710	.749	.057	7.39	***		.907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문화에 대한 태도1		1.000	.644					
	← 문화에 대한 태도2		.601	.500	.046	12.592	***		.911
	← 문화에 대한 태도3		.981	.725	.071	13.15	***		

*** $p < .001$

2.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 후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의 측정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결혼이주인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 및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인 간 인과모형을 해석하기에 앞서 가설적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chi^2 = 247.146$ ($df = 153$, $p < .001$)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χ^2 값은 사례 수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GFI = .983$, $RMSEA = .026$ 으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인 $IFI = .982$, $CFI = .978$, $TLI = .965$, $AGFI = .962$, $NFI = .955$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간명적합지수인 $PCFI = .501$, $PRATIO = .510$ 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적합

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이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8〉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적합
절대적합지수	χ^2	>.05	247.146(df=153, p<.001)	미적합
	GFI	>.90	.982	적합
	RMSEA	<.05	.024	적합
충분적합지수	IFI	>.90	.983	적합
	CFI	>.90	.982	적합
	TLI	>.90	.965	적합
	AGFI	>.90	.962	적합
	NFI	>.90	.955	적합
간명적합지수	PCFI	>.50	.501	양호
	PRATIO	>.50	.510	양호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적 구조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및 부모-자녀 관계,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β) 및 t값(C.R)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분석 결과,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변수의 경로계수 β 는 .340(C.R=6.48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1$)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의 경로계수가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연구 변인 중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2] 어머니가 모국인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국인 지지 활동의 경로계수 β 는 .119(C.R=2.82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1$)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인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민 어머니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자녀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어머니가 모국인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3] 부모-자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인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경로계수 β 는 .187($C.R=4.6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p<.001$).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부모-자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 또한 지지되었다.

그 밖에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는 자녀 성별과 모의 학력, 거주 지역 및 모의 차별 경험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녀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109, p<.01$). 또한 모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beta=-.165, p<.001$). 마찬가지로, 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beta=-.127, p<.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부에 비해 동부에 거주하는 자녀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079, p<.05$). 마지막으로 모의 차별 경험 여부의 경우에, 한국에서 차별 경험이 없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차별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p<.01$). 그 외에 통제변수로 설정한 자녀 연령, 부 학력, 모 연령, 모의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가구소득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

경로			β	<i>B</i>	<i>SE</i>	<i>CR</i>	<i>p</i>
모국인 지지 활동		부의 수용태도	0.164	0.057	0.015	3.792	***
모국인 지지 활동	←	자녀 성별	-0.002	-0.001	0.022	-0.062	0.951
모국인 지지 활동	←	자녀 연령	0.068	0.022	0.011	2.009	0.045
모국인 지지 활동	←	부 연령	-0.015	-0.009	0.021	-0.435	0.663
모국인 지지 활동	←	모 연령	0.131	0.049	0.012	3.939	***
모국인 지지 활동	←	부 학력(고졸)	0.076	0.055	0.032	1.687	0.092
모국인 지지 활동	←	부 학력(중졸 이하)	0.053	0.046	0.042	1.106	0.269
모국인 지지 활동	←	모 학력(고졸)	-0.115	-0.082	0.027	-3.042	0.002
모국인 지지 활동	←	모 학력(중졸 이하)	-0.135	-0.151	0.042	-3.562	***
모국인 지지 활동	←	가구 소득	-0.069	-0.016	0.008	-1.984	0.047
모국인 지지 활동	←	거주 지역	0.061	0.044	0.024	1.86	0.063
모국인 지지 활동	←	한국 거주 기간	0.045	0.026	0.02	1.288	0.198
모국인 지지 활동	←	모 한국어실력	-0.211	-0.078	0.012	-6.401	***
모국인 지지 활동	←	차별경험 여부	-0.051	-0.037	0.023	-1.609	0.108
부모-자녀관계		부의 수용태도	0.106	0.051	0.022	2.3	0.021
부모-자녀관계	←	자녀 성별	-0.068	-0.069	0.034	-2.045	0.041
부모-자녀관계	←	자녀 연령	-0.123	-0.055	0.017	-3.232	0.001
부모-자녀관계	←	부 연령	-0.04	-0.035	0.031	-1.111	0.266
부모-자녀관계	←	모 연령	0.013	0.007	0.018	0.383	0.701
부모-자녀관계	←	부 학력(고졸)	-0.057	-0.058	0.048	-1.203	0.229
부모-자녀관계	←	부 학력(중졸 이하)	-0.061	-0.074	0.061	-1.209	0.227
부모-자녀관계	←	모 학력(고졸)	-0.006	-0.006	0.039	-0.143	0.886
부모-자녀관계	←	모 학력(중졸 이하)	0.002	0.003	0.062	0.042	0.966
부모-자녀관계	←	가구 소득	0.019	0.006	0.012	0.541	0.588
부모-자녀관계	←	거주 지역	0.001	0.001	0.035	0.02	0.984
부모-자녀관계	←	한국 거주 기간	-0.001	-0.001	0.029	-0.036	0.972
부모-자녀관계	←	모 한국어실력	0.054	0.028	0.018	1.591	0.112
부모-자녀관계	←	차별경험 여부	0.038	0.039	0.034	1.152	0.249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부의 수용태도	0.340	0.242	0.037	6.485	***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자녀 성별	0.109	-0.161	0.051	-3.133	0.002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자녀 연령	-0.077	-0.051	0.025	-2.041	0.041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부 연령	0.053	0.068	0.048	1.412	0.158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모 연령	-0.02	-0.016	0.028	-0.558	0.577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부 학력(고졸)	0.012	0.018	0.073	0.248	0.804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부 학력(중졸 이하)	0.084	0.15	0.094	1.592	0.111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모 학력(고졸)	-0.127	-0.188	0.062	-3.038	0.002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모 학력(중졸 이하)	-0.165	-0.381	0.097	-3.905	***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가구 소득	0.018	0.009	0.018	0.481	0.631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거주 지역	0.079	0.118	0.054	2.204	0.027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한국 거주 기간	-0.049	-0.057	0.045	-1.261	0.207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모 한국어실력	-0.027	-0.021	0.028	-0.75	0.454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차별경험 여부	-0.083	-0.124	0.052	-2.376	0.018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모국인 지지 활동	0.119	0.246	0.087	2.825	0.005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	부모-자녀관계	0.187	0.274	0.059	4.664	***

3. 매개효과 분석

1)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두 번째 연구문제로 제시한 두 변수들의 매개효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여 해당 변인들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는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간접효과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의미하는데, 이때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변인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효과분해라고 칭한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판단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날 때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β), t-값(C.R) 및 p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효과분해 분석 결과

변수		부의 언어수용태도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	
		B(β)	S.E	B(β)	S.E	B(β)	S.E
모국인 지지 활동	직접	.057* (.016)	.014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간접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	.057* (.016)	.014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모-자녀관계	직접	.051* (.106)	.023 (.04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간접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	.051* (.106)	.023 (.04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직접	.240** (.340)	.047 (.051)	.246** (.119)	.087 (.041)	.274** (.187)	.067 (.050)
	간접	.028* (.039)	.009 (.0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	.270** (.380)	.048 (.052)	.246** (.119)	.087 (.041)	.274** (.187)	.067 (.050)

※ 유의도 : * $p<.05$, ** $p<.01$, *** $p<.001$

※ 부트스트랩 신뢰수준 95%, 사례 수 1000개

먼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총효과는 .270($p=.0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직접효과=.240, $p=.002$)과 동시에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간접효과=.028, $p=.001$).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모형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부분 매개모형으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별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위의 간접효과는 매개변인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효과가 함께

측정되어 나온 값이다. 즉, 매개변수가 두 개일 때 각각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합쳐진 값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경로에 대한 두 매개변수들의 개별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매개변수의 개별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Sobel 검증과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기법이 있다. Sobel 검증은 표본크기가 작을 경우 정규분포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고, 이중매개 등 복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Lau & Cheung, 2010). 반면에 팬텀변수를 활용할 경우 모델의 적합도나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매개변수의 개별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매개변수를 활용하며,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obel 검증보다는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기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팬텀변수에서 종속변수까지의 계수를 ‘1’로 고정하고, 각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를 오차항에서 팬텀변수까지의 계수로 대입하였다(홍세희, 2012). 또한 개별매개효과의 검증은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1000회 반복 검증하였다. 각 경로에서 제시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각 개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병렬, 2011). 그 결과, 모국인 지지 활동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인 95% 수준에서 .003~.035, 유의확률 .010($p<.05$)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는 .006~.031, 유의확률 .001($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팬텀변수 활용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Estimate	S.E	95% 신뢰구간		p
			Low	Upper	
어머니 언어에 대한 부의 수용태도→ 모국인 지지 활동→자녀 태도	.014	.006	.003	.035	.10
어머니 언어에 대한 부의 수용태도→ 모국인 지지 활동→자녀 태도	.014	.008	.006	.031	.001

[연구가설 4-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에 의해 설명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일정 부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여부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먼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에 의해 설명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일정 부분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여부에 의해 설명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1]을 검증한 결과,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간접 경로에 대해 유의하였다. 이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구가설 4-1]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4-2]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에 의해 설명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일정 부분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에 의해 설명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일정 부분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2]를 검증한 결과,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 부모-자녀관계 →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의 간접 경로에 대해 유의하였다. 이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의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구가설 4-2] 또한 지지되었다.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인 이주민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국외 연구들은 사회화이론을 활용하여 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소수집단 자녀의 태도 간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였다(趙衛國, 2007; Stepney, Sanchez, & Handy, 2015; Furnham & Stacey, 1991).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단일 집단으로 이루어진 이주민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대 간 태도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주민가정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소유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Joyce(2012)의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 경로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이중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자녀관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는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데이터 중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이주민 어머니, 그리고 9세 이상 12

세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총 1,100 가구를 최종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알아보고, 그 경로에서 나타나는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여부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인 아버지의 언어 수용태도는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아버지가 어머니 언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국인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구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은 부모-자녀관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구가설 3] 또한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은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

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이로써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한 개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4-1]과 [연구가설 4-2] 모두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절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하여 갖는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이주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아버지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를 하나의 가치 있는 문화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정

언어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일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류집단 부모의 소수문화 수용태도가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趙衛國, 2007; Stepney et al., 2015; 정정화, 2014).

趙衛國(2007)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수문화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 태도와 자녀의 태도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tepney 외(2015)의 연구에서도 자녀 성별과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류집단 부모의 소수문화 수용태도가 소수집단 자녀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태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urnham과 Stacey(1991)은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소수문화에 대한 부모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정화(2014)는 한국인 아버지가 이주민 어머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결혼이주민 어머니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데에는 한국인 아버지의 소수문화 이해와 수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이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국내외 연구들(Lee, 2013; Karssen, 2015; 김현미, 201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국적 출신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모임은 이주민 부모가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곧 자녀의 소수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강한 문화에 대한 태도를 위해 모국인 지지 활동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어머니의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부모-자녀관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부모-자녀관계 또한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대표적인 가정 내 사회화 전략으로서 자녀의 태도와 인지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주장한 Vygotsky(1978)의 논의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유대, 친밀감이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짐을 밝힌 기존 국외연구들(Kiang et al., 2010; Stepney et al., 2015; Miville et al., 2005; Chong, 2012; Lamborn & Nguyen, 200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부모와 자신이 소속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유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발달을 위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녀가 인지한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만을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친밀감 등 더욱 다양한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결혼이주민 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는 자녀가 태도를 부모로부터 내면화하여 확립하는 과정을 부모의 사회화 활동이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자녀의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아버지의 수용태도의 영향은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변수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국인 지지 활동이 문화사회화 활동으로서 소수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한 국외 연구들(Casey & Dustmann, 2010; Imbens-Bailey, 1996)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민 어머니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이주민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 수준을 높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부모-자녀관계 또한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집단 부모가 가정에서 공유된 소수문화가 지닌 가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부모

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소수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를 밝힌 기존 연구들(Oh & Fuligni, 2010; Luo & Wiseman, 200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국인 아버지의 소수언어 수용태도 수준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을 통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개인별로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자녀가 건강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들을 가족체계 속에서 탐색함으로써, 현 다문화가족 정책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변인 및 결혼 이주민 어머니의 이주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들을 감안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와 좀 더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윤인진·채정민, 2007; 이현주·강현아, 2011). 또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 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반면 소수문화는 배제하는 성향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연령과 소수문화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다룬 연구 중에서 유일하게 허청아(2014)의 결과와 일치하고 그 외의 연구들의 결과(정정화, 2014; 이현주·강현아,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자녀 연령과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태도 간 정적 관계를 결과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Phinney et al., 2001; Amily & Norina, 2010).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수문화를 보유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논의에 근거한다(Phinney et al.,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대부분이 낮은 학력 출신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문화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양승주 외, 2016). 이와 같은 실태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의 인적 자원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주 관련 변인 중에서는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차별경험 여부 변인이 유일하게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어머니를 둔 자녀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에 비해 어머니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Inman et al., 2007)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충된 결과의 원인을 어머니의 문화사회화 활동 유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사회에서 주류언어의 미숙함이나 상이한 외모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어머니는 주류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수문화를 배제하게 되는데(Johnson & Hughes, 2001), 이 때문에 자녀 또한 어머니 문화를 부정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혹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어머니의 차별경험 변수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의 오류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차별경험 변수를 활용하여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화 이론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태도의 전이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최근 들어 태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기 자녀의 사회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부모 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 이론을 활용하여 소수문화에 대한 주류집단 부모의 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화 이론을 국내 다문화가정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를 소수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추후 연구에서 주류집단 부모를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문화수용 태도를 다룬 국내 연구들은 이주민 어머니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와 적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극히 동화주의 입장에 근거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문화간 감수성 모델 및 문화접변 모델을 바탕으로 주류집단 부모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소수문화 수용태도가 다른 변인들보다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주류집단 부모의 태도가 지니는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부모의 문화사회화

활동이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나아가 두 변인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아동기 자녀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는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사회화를 설명하는 부분매개변수임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부모의 태도가 소수집단 자녀의 태도로 이어지는 영향 경로를 부모의 사회화 활동과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설명한 Joyce(2012)의 연구 모형이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나아가 아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 단위의 자료를 통해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한하여 소수의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대표성이 있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과 부모-자녀관계가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마련하였다.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주류집단 부모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수문화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전 지역에 있는 Head Start 센터에서는 이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에게 소수문화와 언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Galper, Wigfield, & Seefeldt, 1997). 미국과 함께 일찍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호주에서도 이주민 언어를 “지역사회 문화 및 언어(Community culture and language)”로 간주하여, 주류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수 언어 학습 기회와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이해영 외, 2010). 또한 매해 3월 21일을 하모니데이(Harmony day)로 지정하여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에서 다문화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Moran, 201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문화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민족 집단 구성원들이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주민 배우자의 모국문화와 모국어에 대한 한국인 부모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왔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센터와 시민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 아리랑 축제(Migrant Arirang Festival)는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이주민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거나 문화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예는 매우 소수에 달한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주류집단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수문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프로그램 대비 약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영 · 류연정, 2010). 또한 예산이나 인력 부족 문제가 남아있으며, 내용 또한 전통놀이 체험 등의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구정화, 2012). 한국인 부모가 이주민 배우자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소수문화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문화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예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 남성은 이주민 배우자의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중개업체

를 통해 얻은 정보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혼인 이후에도 문화에 대한 관심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따라서 혼인 전 단계나 결혼정착 초기에 이주민 배우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사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인 아버지의 참여 의사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민 어머니가 참여하는 모국인 지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들 수 있다(Ciment & Radzilowski, 2015). 자조집단이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지지망을 의미한다(Rootes & Aanes, 1992). 이주민 중심의 자조모임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나아가 사회에서 위축되어 있는 이주민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강기정·박경애, 2011).

자조모임의 다양한 예는 일본과 캐나다 등 일찍이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온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다문화공생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자치현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모임을 지지하여 왔다(總務省, 2012). 또한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이민 여성 동료 지원 프로그램(Immigrant Women's Peer Support Program; 이하 IWSP)은 이주민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을 결성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사회적 관계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Gardner et al., 2016).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민들의 출신국적별 자조모임 결성을 시도해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박성옥, 2016). 이와 같은 프

로그래프는 신규 결혼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배 이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마련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내 이주민 자조모임의 숫자와 수혜 범위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모임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의 불신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주민 여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강현주, 2007). 이주민 자조모임의 지속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시부모의 이주민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인 아버지들과 시부모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소수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자조모임의 연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 배우자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해와 수용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와 유대를 높이며, 소수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 자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민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한국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가족구성원들 간 대화 증진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음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글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 부모를 위해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로 집필된 웹교재를 활용하여 자녀양육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장명립 외, 2013).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부부역할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강기정, 이무영, 강복정, 2011).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이주민 배우자 언어를 가정언어로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부모가 소수언

어로 된 책을 자녀에게 읽어주는 가족 문해력(Family Literacy)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자녀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Mulhern, Rodríguez-Brown, & Shanahan, 1994). 만일 이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 다문화가정에 적용된다면 부모-자녀관계와 이주민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수문화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따라서 한국인 아버지를 참여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녀 양육의 주체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정작 한국인 아버지를 프로그램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송미경, 신호정, 이은경, 2008).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내용과 운영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박신규, 2011). 한국인 아버지 대상의 자녀 양육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 제고를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맞춤형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접근성의 어려움과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신규,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지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모교육이나 상담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이 지닌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의 모국인 지지 활동 및 부모-자녀관계가 결혼이주민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와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소수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보이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변인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 관련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족체계에 주목하였으나, 추후에는 가정 외에도 친구, 학교, 이웃 등 주변 사회적 환경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또래집단은 아동의 가치관과 태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사회화 대행자로 알려져 있다(Joyce, 2012). 아동은 자신과 비슷한 대상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정체감이나 태도,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또래집단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문화 수용태도 또한 부모의 태도만큼이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부모 외에도 또래집단의 태도를 고려하여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의 소수문화 수용태도 및 모국인 지지 활동, 부모-자녀관계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어머니의 출신 국적을 통제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국적이 주류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사회화 과정과 문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

으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필리핀 국적 출신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신 국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출신 국적을 통제변수로 처리하여 출신 국적에 따라 어머니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2차 분석자료 연구로서 문항들이 주요 변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는 언어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체계라는 논의에 근거하여 소수언어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문화는 언어 외에 종교 및 의식, 예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변수의 경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이나 의사소통 수준, 유대감 등의 하위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하위요인들을 포함한 척도를 활용하여 일반화의 가능성과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진입한 이주민들의 성별 실태를 고려하여 결혼이주민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그리고 국내 출생 자녀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북한이탈가정, 중도입국가정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족 유형으로서 추후 연구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포함하여 각 가족 유형에 따른 세대 간 태도의 전이 과정을 탐색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층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문화에 대한

태도가 연령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사회화 양상과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한 시기에 실시된 횡단조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 및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각 변수의 시간적 변화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이무영, 강복정(2011). 다문화가족상담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3), 225-245.
- _____, 박경애(201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다문화사회연구, 4(2), 103-138.
- 강현주(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고현, 최진숙, 김성미(2015).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교육 수용태도의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237-260.
- 구정화(2012).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1(1), 1-18.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레아카데미.
- 김두섭, 차승은, Kim, H.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적응. 서울: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미숙, 김유경, 김안나, 김효진, 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예, 임지영, Chung, G. H.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 응집성이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간호학회지, 42(6), 879-888.
- 김미진(2012). 다문화가족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민족-인종사회화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5(2), 73-89.
- 김승경·양계민(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영란, 장혜경, 김민정, 김은경(2015).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오남(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 95-129.
- 김태원(2011). 한국 다문화 연구현황과 새로운 방향모색. 2011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35-51.
- 김현미(2014). ‘유보된 삶’: 몽골 결혼이주여성의 ‘귀환’이후의 삶. 이화젠더법학, 6(2), 25-43.
- 김현지·허두진(2012). 부산지역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프로그램 연구. 연구보고서, 1-121.
- 김혜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문수백(2013).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무숙, 김이선, 주유선, 이정연(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5-43.
- _____,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명숙(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 박명순, 차윤경, 김현경(2014). 농촌 거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인식한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4), 101-122.
- 박성옥(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3), 83-105.
- 박신규(201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세계 분석 및 지원방안-가정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 박찬옥·이은경(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변용과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6), 433-458.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2012).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이중문화적 양육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효

- 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배재정(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 발달 및 평가 방안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9(3), 143-165.
- 백지숙·박성연(2004).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7), 119-129.
-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9).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송미경, 신호정, 이은경(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 청소년상담연구.
- 송순·신현실(2002).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23-235.
- 송영호·윤은진(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2.
- 신부용(2014).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인역할모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단적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신희건, 유일영, 오의금(2010).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3), 220-229.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연숙(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언어 선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전행정부(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안진(2013).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30(1), 41-74.
- 양순미(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2(4), 559-576.
- 양승주, 신현옥, 윤상석, 허은영, 김송이(2016).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방안. 서울: 교육부.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오대영·안진경(2011). 다문화 가정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적 지원 방안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윤소영·류연정(2010). 문화기반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수현·Chung, G. H. (2015).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자녀에 대한 민족사회화 수행: : 만 7-18세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3), 15-29.
- 윤은영(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인진·채정민(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176.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소영(2013).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참여와 다문화시민권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라남도.
- 이원재·김선(2014). 다문화가정의 부모관계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 15(3), 1367-1374.
- 이지영(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

- 국가폭복지학, 17(2), 105-125.
- 이해영, 김영규, 박선희, 이준호(2010).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사례와 효과 조사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이학식·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서울: 범문사.
- 이현주·강현아(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339-369.
- 임선일 외(2015).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의 효과적인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 시론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명림, 권미경, 김혜진, 공요은(2013).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정수정·김영식(2015). 민속표현 활동을 적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3), 115-126.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창환·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어권 외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론, 54(4), 375-397.
- 정정화(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지승희, 송미경, 조은경, 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진대연·강복정(2011).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요구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14, 177-202.
- 진은영(2008).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한국철학회, 95, 255-283.

- 채명정, 김진일, 이진희(2015). 다문화 교과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및 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3), 373-381.
- 최경일 · 김미영(2016).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친구관계와 학업태도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8(단일호), 109-133.
- 최은경(2011).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최현미 외(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허청아(2014). 동남아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의 태도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세희(2012).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모형과 최신발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단일호), 543-57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Acock, A. C. (1984). Parent and their children: The study of inter-generation influenc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8, 151-171.
- Acock, A., & Bengston, V. L(1980). Socializa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Actual vs. perceived similarity among parents and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501-515.
- Agar, M. (1994). The intercultural fram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2), 221-237.
- Allport, G. W. (1955). *Becoming;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20, Yale University Press.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gozzi, R. P., Yi, Y., & Singh, S. (1991). O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experimental designs: Two exten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8(2), 125-140.
- Baker, C. W., Whisman, M. A., & Brownell, K. D. (2000). Study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questions. *Health Psychology*, 19(4), 376.
- Baker, M. E. (2002). Economic, political and ethnic influences on end-of-life decision-making: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health & social policy*, 14(3), 27-39.
- Bankston, C. L., & Zhou, M. (1995). Effects of minority-language litera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Vietnamese youths in New Orleans. *Sociology of education*, 68(1), 1-1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nnett, J. M.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Ed. R.M. Paige. 2nd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Bennett, M. J., & Bennett, M. J. (1993). Intercultural sensitivity. Principle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Portland, OR: Portland State University.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1) :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 - 712.
-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Vol. 154)*. Sage.
- Borjas, G. J. (1992).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immigrants (No. w397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ugental, D. B., & Grusec, J. E. (2006). Socialization theory.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366-428.
- Casey, T., & Dustmann, C. (2010). Immigrants' identity, economic outcomes and the transmission of identity across generations. *The Economic Journal*, 120(542), 31-51.
- Charmaraman, L. & Grossman, J. M. (2010). Importance of race-ethnicity: An exploration of Asian, Black, Latino, and Multiracial adolescent identity, *Cultural Diversity Ethnic Minor Psychology*, 16(2), 144-151.
- Chen, X. (2010). Identity construction and negotiation within and across school communities: The case of one English-as-a-new-language (ENL) student.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9(3), 163-179.
- Chong, V. (2012). *Racial identity, famil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sian-White biracial young adults*. University of Windsor. Master degree thesis.
- Chung, H. S., Kim, Y.S., & Lee, A. (2013).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n bilingual educ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Ciment, J., & Radzilowski, J. (2015). *American Immigration: An Encyclopedia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 Routledge.

201-206.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315-346.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2), 218.
- Cooley, C. H. (1902). *The looking-glass self*. O'Brien, 126-128.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sizmadia, A. (2011). The role of racial identification, social acceptance/rejection, social cognition, and racial socialization in multiracial youth's positive development. *Sociology Compass*, 5(11), 995-1004.
- Davidov, M., & Grusec, J. E. (2007). Socialization in the family: The roles of parent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284-308.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DeBerry K.M., Scarr, S., & Weinberg, R (1996). Family racial socialization and ecological competence: Longitudinal assessments of African-American transracial adoptees. *Child Development*, 67, 2375-2399.
- Eagly, A. H., & Chaiken, S. (1998).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4), 269-322
- Edmonds, C., & Killen, M. (2009).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relate to their intergroup contact and

- cross-race relationshi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1), 5-21.
- Fillmore, L. W. (2000). Loss of family languages: Should educators be concerned?. *Theory into practice*, 39(4), 203-210.
- Fishbein, M., & Ajzen, A. (1986).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1975, Reading, MA: Addison-Wesley. Engel et al.
- Furnham, A., & Stacey, B. (1991).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society*. London, England UK: Routledge.
- Galisson, R. (1991).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CLE Internat..
- Galper, A., Wigfield, A., & Seefeldt, C. (1997). Head Start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abilities, task values, and performances on different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68(5), 897-907.
- Gardner, M. T., Cheng, Y., May, R., Beard, C., Sterbenz, J., & Medhi, D. (2016, March). *Creating network resilience against disasters using service level agreements*. In *2016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sign of Reliable Communication Networks (DRCN)* (pp. 62-70). IEEE.
- Gecas, V. (1991). The self-concept as a basis for a theory of motivation. *The self-society dynamic: Cognition, emotion, and action*, 171-187.
- Giles, H., & Johnson, P. (1987). Ethnolinguistic identity theor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language mainte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68, 69-100.
- Glass, J., Bengtson, V. L., & Dunham, C. C. (1986). Attitude similarity in three-generation families: Socialization, status inheritance, or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5-698.

- Goldstein, B., & Oldham, J. (1979). *Children and work: A study of socialization*. Transaction Publishers.
- Gujarati, D., & Porter, D. (2010). *Essentials of Econometrics (4th ed.)*. New York, NY: McGraw-Hill Corporation, Inc.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_____,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NY: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
- Heider, F. (1944).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ogical review*, 51(6), 358.
- Heller, M. (1987). *The role of language in the formation of ethnic identity*.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180-200.
- Himmelfarb, S., & Eagly, A. H. (1974). *Readings in attitude change*. John Wiley & Sons.
- Hoge, D. R., Petrillo, G. H., & Smith, E. I. (1982). Transmission of religious and social values from parents to teen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569-580.
- Hoijer, H. (1954). The Sapir-Whorf Hypothesis. *Language in culture*, 92-105.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ughes, D., Rodriguez, J., Smith, E. P., Johnson, D. J., Stevenson, H. C., & Spicer, P. (2006). Parents' ethnic-racial socialization practices:

- A review of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747-770.
- Imbens-Bailey, A. L. (1996). Ancestral Language Acquisition Implications for Aspects of Ethnic Identity among Armenian America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5(4), 422-443.
- Inman, A. G., Howard, E. E., Beaumont, R. L., & Walker, J. A. (2007). Cultural transmission: Influence of contextual factors in asian indian immigrant parents' experi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93-100.
- Johnson, N. R. (1981). Aesthetic socialization during school tours in an art museum. *Studies in Art Education*, 23(1), 55-64.
- Johnson, C. D., Avery, D. R., Tonidandel, S., Thomas, K. M., & Mack, D. A. (2007). Assessing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for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racial and ethnic group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7(5), 877-888.
- Johnson, D., & Hughes, D. (2001). Correlates in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s' racial socializ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81-995.
- Joyce, J. A. (2012). *Parent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fluencing early adolescent ethnic identity, religiosity, and distal academic-related outcomes*,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Oregon.
- Karssen, A. M.(2015) *Influences on ethnic identity development of interethnic adolescents: Familial ethnic socialization practices, familial demographic variables, and peers*. University of Amsterdam. Master thesis..

- Kasuga-Jenks, S. (2012). Multiple Voices: Racial and Ethnic Socialization Within Interracial Asian and White Families.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 Kiang, L., Witkow, M. R., Baldelomar, O. A., & Fuligni, A. J. (2010). Change in Ethnic Identity Across the High School Years Among Adolescents with Latin American, Asian, and European Background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9(6), 683-693.
- Krathwohl, D. R., Bloom, B. S., & Masia, B. B. (1964).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ISBN 0-679-30210-7, 0-582-32385, 1.
- Kuder, G. F., & Richardson, M. W. (1937). The theory of the estimation of test reliability. *Psychometrika*, 2(3), 151-160.
- Lamborn, S., & Nguyen, D. (2004).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family interactions: Kinship support, parent - child relationships, and teen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547-558.
- Lau, R. S., & Cheung, G. W. (2010). Estimating and comparing specific mediation effects in complex latent variable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5(1), 3-16..
- Lee. O. R. (1982). *Early bilingual reading as an aid to bilingual and bicultural adjustment for a second generation Korean child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studies.
- Lee. J. (2010). *Family Cohesion as a moderator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ocialization behaviors and adolescents' ethnic identity importance in Chinese immigrant families*. Masters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Lee, R. M., Grotevant, H. D., Hellerstedt, W. L., & Gunnar, M. R. (2006). Cultural socialization in families with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4), 571-580.

- Luo, S. H., & Wiseman, R. L. (2000). Ethnic language maintenance among Chinese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3), 307–324.
- Maccoby, E. E. (2007). Historical overview of socialization research and theory.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13–41.
- Mardia, K. V. (1974). Applications of some measures of multivariate skewness and kurtosis in testing normality and robustness studies. *Sankhyā: The Indian Journal of Statistics, Series B*, 115–128.
- Miville, M. L., Constantine, M. G., Baysden, M. F., & So-Lloyd, G. (2005). Chameleon Changes: An Exploration of Racial Identity Themes of Multiracial Peo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07.
- Moran, A. (2011). Multiculturalism as nation-building in Australia: Inclusive national identity and the embrace of divers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34(12), 2153–2172.
- Mulhern, M., Rodríguez-Brown, F. V., & Shanahan, T. (1994). *Family literacy for language minority families: Issues for program implementation* (No. 17).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
- Murphy, J. M. (1976). Psychiatric label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Science*, 191(4231), 1019–1028.
- Murray, G., & Mulvaney, M. K. (2012). Parenting styles, socializ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partisanship. *Politics & Policy*, 40(6), 1106–1130.
- O'Bryan, M., Fishbein, H. D., & Ritchey, P. N. (200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rejudice, sex role stereotyping, and intolerance. *Adolescence*, 39(155), 407.
- Oh, J. S., & Fuligni, A. J. (2010). The role of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in the ethnic identity and family relationships of

-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Social Development*, 19(1), 202-220.
- Olmedo, E. L. (1979). Acculturation: A psychometric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1), 1061-1070.
- Ontai-Grzebik, L. L., & Raffaelli, M. (2004). Individual and social influences on ethnic identity among Latino you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5), 559-575.
- Paige, R. M., Jacobs-Cassuto, M., Yershova, Y. A., & DeJaeghere, J. (2003). Assess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ammer and Bennett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67-486.
- Parke, R. D., & Buriel, R. (2006).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pp. 429-504).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Phinney, J. S., Berry, J. W., Vedder, P., & Liebkind, K. (2006). *The acculturation experience: Attitudes, identities, and behaviors of immigrant youth.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71-116.
- _____, J. S. & Devich-Navarro, M. (1997).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1), 3-32.
- _____, Chavira, V., & Tate, J. D. (1992). The effect of ethnic threat on ethnic self-concept and own-group rating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4), 469-478.
- _____,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 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Pinquart, M., & Silbereisen, R. K. (2004). Human development in times of social chang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research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4), 289-298.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49, 701-708.
- Rootes, L. E., & Aanes, D. L. (1992).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lf-help groups. *Psychiatric Services*, 43(4), 379-381.
-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3, 1-14.
- Rubin, D. B. (2004).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Vol. 81)*. John Wiley & Sons.
- Rumbaut, R. G. (1997). Assimilation and its discontents: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923-960.
- Sapir, E. (1968). Language defined. *Language and culture*, 3-19.
- Schieffelin, B. B. (1990). *The give and take of everyday life: language, socialization of Kaluli children* (No. 9). CUP Archive.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76). *Patterns of child rear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rake, E. K., & Rhee, S. (2004). Ethnic identity as a predictor of problem behavior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39(155), 601-622.
- Sinclair, S., Dunn, E., & Lowery, B.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 parental racial attitudes and children's implicit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3), 283-289.
- Siragusa, L., & Dixon, K. C. (2008). *Planned behaviour: Student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ICT interactions in higher education. Hello! Where are you in the landscape of educational technology?* Proceedings ascilite Melbourne 2008.
- Skeels, H. M. (1966). Adult status of children with contrasting early life experiences: A follow-up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1(3), 1-65.
- Stepney, C. T., Sanchez, D. T., & Handy, P. E. (2015). Perceptions of parents' ethnic identities and the personal ethnic-identity and racial attitudes of biracial adul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1(1), 65-75.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33(47), 94-109.
- Thompson, C. P., Anderson, L. P., & Bakeman, R. A. (2000). Effects of racial socialization and racial identity on acculturative stres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2), 196-210.
- Thurston, L. L. (1931). The measurement of change in social attitud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230-235.
- Umaña-Taylor, A. J., & Fine, M. A. (2004). Examining ethnic identity among Mexican-origin adolesc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6(1), 36-59.
- Vygotsky, L. (1978). Interaction between learning and development.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3(3), 34-41.
- Waters, M. C. (1994). Ethnic and racial identities of second-generation black immigrants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 Review, 28(4), 795-820.
- Weaver, G. (1986).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cross-cultural adjustment stress*. In R. M. Page (Ed.), *Cross-cultural orientations: New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London:University Press of America.
- Whaley, A. L., & Francis, K.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2), 169-174.
- Whitbeck, L. b., & Gecas. V. (1988). Value attributions and value transmiss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29-840.
- Whitaker, D. J., & Miller, K. S. (2000). Parent - 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251-273.
- Zentner, M., & Renaud, O. (2007). Origins of adolescents' ideal self: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557.
- 趙衛國(2007). 中國人高校生の異文化適応過程-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の要因に注目して-,東京大學大学院教育研究科紀要, 47, 337-346.
- 總務省(2012).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會報告書～災害時のより円滑な外國人住民對応に向けて～,總務省, 45. 88-100.

<부록> 분석에 활용한 변수

분류	변수 명	문항	값
종속 변수	어머니 문화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태도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1점 관심이 없다=2점 보통이다=3점 관심이 있다=4점 매우 관심이 많다=5
		-당신은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점 자랑스럽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랑스럽다=4점 매우 자랑스럽다=5점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독립 변수	결혼이주인 어머니 언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수용태도	-나는 (평소 집에서)외국인 배우자가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준다 -나는 외국인 배우자 나라의 말을 배운 적이 있다 -나는 외국인 배우자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매개 변수	어머니의 모국인 지지 활동	-자신이나 집안에 관한 일을 누구와 의논합니까? -일자리와 관련하여 누구와 함께 의논합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누구와 의논합니까? -여가 및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국인=1, 한국인, 기타 외국인, 아무도 없음=0

	부모-자녀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어머니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1점 만족한다=2점 보통이다=3점 불만족스럽다=4점 매우 불만족스럽다=5점
통 제 변 수	자녀 성별	자녀의 성별	여성(1), 남성(0)
	자녀 연령	자녀의 연령	기입 값
	부모 연령	부모의 연령	기입 값
	부학력/ 모학력	최종학력	대졸 이상(기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가구소득	지난 1년 동안의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50만원 미만(1) 50-100만원 미만(2) 100-200만원 미만(3) 200-300만원 미만(4) 300-400만원 미만(5) 400-500만원 미만(6) 500-600만원 미만(7) 600-700만원 미만(8) 700만원 이상(9)
	거주지역	거주지역	동부(1) 읍면부(0)
	모의 한국 거주 기간	귀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언제 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함 께 살기 시작한 년도’ - 2012
	모의 한국어수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영역에 대한 한국어 실력은 어 느 정도입니까?	매우 잘한다=1점 잘하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서툰 편이다=4점 매우 서툴다=5점
	모의 차별경험	당신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차별 경험이 있다(1) 차별 경험이 없다(0)

Abstract

The influence of Korean father's acceptance attitude toward Immigrant mother's language on the Multi-cultural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ark In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issue of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concern. Brought up in distinctive bicultural environment, multi-cultural children are require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 parent's minority culture for their social adjustment and developmental growth.

Parents are the primary agents who socialize their children

consistent with their cultural attitudes via specific cultural socialization activities and interactions between parent and children. Previous investigations demonstrated parental attitude toward minority culture can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ultural attitude,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ed numbers of studies which investigated intergener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socialization theory and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demon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father's acceptance attitude toward immigrant mother's language and multi-cultural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Particularly, four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is study: 1) Does Korean father's acceptance attitude toward immigrant mother's language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2) Does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one of cultural socialization activities, affect on their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3) Does parent-child relationship affect on the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and 4) Do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father's attitude toward immigrant mother's language and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A data of "National study of Multi-cultural families(2012)" was used in this study. Among participants in this study, 1,100 families that are consisted of Korean father, immigrant mother, and their children(aged 9-12)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o determine general tendency of the data,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addition, bootstrapping using Phantom variable was utilized in order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specific indirect effects of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Korean father's attitude toward immigrant mother's language had positive influence on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In other words, as Korean father possesses positive attitude toward minority language, their children a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mother's minority culture as well. Second,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ultural attitude of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children whose mothers participate for ethnic support group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than those whose mothers do not. Third, parent-child relationship also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ultural attitude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other words, children who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ir parents have also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mother's culture. Lastly, both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artly mediated the influence of Korean father's acceptance attitude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mother's culture. These results indicate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culture can be explained not only by father's acceptance attitude, but mother's ethnic support activit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rry follow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Korean father's attitude toward minority language can affect on the child's cultural attitude using the National representative data. Second,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hat socialization and cultural sensitivity model used in this study were useful in explaining the transmission of intergenerational attitudes targeting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this study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father and children's attitudes toward minority culture more critically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by using two mediating variab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n empirical ground for social work policy and practices targeting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First, there should be social supports to improve Korean father's attitude toward minority language as well as encouraging the bilingual home environment. Second, ethnic support groups should be provided more widely for immigrant mothers so that their cultural values and beliefs can be internalized to their child. Third,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r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Keywords : Multi-cultural childre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attitudes, Children's socialization, Ethnic support activities, Parent-child relationship

Student number : 2014-20260